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 '유명무실'

지난 5년간 고작 39건 집행... 지자체 4곳 중 한곳은 제도자체도 없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4곳 중 1곳은 제도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를 도입한 곳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169개 기초단체에서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비리를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39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광역단체에서 서울 27건, 인천 4건, 경기 4건, 제주 2건, 전남 1건이었으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69개 기초단체에서 천안만 유일하게 1건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실적이 전무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약 46억 원이었으나 3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1억 4천만 원에 불과해 3% 남짓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제도만 도입했을 뿐 예산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37개 지자체가 약 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천안 원 가량을 집행해 15%의 집행률을 보였다.

물론 이것이 공직비리가 근절된 결과라면 박수받을 일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공직비리 사건들을 감안할 때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적절할 해석일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가 무성의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부와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정복 기자

미래부 이전 명확한 입장 밝혀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정부와 여당은 미래부 세중시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이전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희철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과천 잔류 동향에 따라 세종시 정상건설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상식과 순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국토 균형발전은 수도권 일극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대안이며 세종시는 그 대안의 총아"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8년을 거치면서 수도권 일극주의는 더욱 선명해졌고 국토 균형발전 의지는 희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처 이전과 관련해 왜 상식과 순리를 거스르며 충청인을 가슴 졸이게 만드는가?"고 반문했다.

서희철 대변인은 또 "세종시 수장은 아직도 충청인에게 씻기 힘든 상처로 남아있다"면서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세종시 무력화 시도는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또한 서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미래부 잔류 동향에 대한 충청인의 정당한 우려와 분노를 정략적으로 폄하하고 있다"면서 "도리어 누가 정략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충청인의 진심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한 서 대변인은 "행복도시 특별법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 될 터인데 또 다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한 주체는 정부여당을 지시하라"고 충고하고 "정부여당은 조속히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제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선 기자



천안종합운동장부설 축구경기장 인근 휴게의자 '눈살'

부식되고 망가진 채로 방치

천안시의 종합운동장부설 축구경기장 인근 휴게의자가 부식되고 망가진 채로 방치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임시조치 등 대책이 요망된다.

실제로 축구장 주변과 매점 부근의 공원 벤치에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목재의자가 20여 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의자들이 부식되고 떨어져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밤에 모르고 그냥 앉았다가는 큰 상처를 입을 정도로 위험스러운 정도이다.

천안시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벤치의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부식방이나 일부 수선공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불만을 자초하고 있다.

휴식공간인 벤치의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부식방이나 일부 수선공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불만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은 이를 보면서 "의자를 설치해놨으면 시설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부식되고 부식돼도 그대로 방치하며 예산타령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일이라도 수선하고 처음부터 부식이 되지 않도록 방부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천안시와 시설관리공단 측은 부서진 일부의 자라도 임시조치를 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관리했으면 하는 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이다.

한편 천안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2015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5개 시설이 선정돼, 국비 13억 8000만 원과 지방비 25억 2000만 원 등 총 39억 원이 투입돼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요청, 국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그 대상 사업은 ▲천안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아우내실내체육관 등으로 트랙교체와 균열부분 보수, 수명장 보수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정환 기자



박 대통령, 2015 지역희망박람회 대전시 부스 찾아 격려

"U-City 통합센터 알리는 것 중요"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인 2015 지역희망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가운데 대전시는 '시민행복, 안전한 일상, 첨단과학기술 대전'을 주제로 한 부스를 펼치며 홍보하고 있다.

이번 축제 개막식에 참가한 박근혜 대통령은 권선택 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대전시 전시관을 찾아 안전에 대한 당부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전국 유일의

U-City 통합센터에서 관제하는 장면을 전승하는 부스 내 대형화면을 보면서 "시민들에게 24시간 안전을 지키기 위해 U-City 통합센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편안함을 범죄자들에게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역희망박람회에서 대전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과학의 도시 대전이 주도한다는 메시지를 전국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시는 '안전한 일상'을 주제로 대전 유시티 통합센터 관제장면과 지능형 첨단 CCTV 시연과 '첨단과학기술'의 홍보를 위해 세계 5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주사전자현미경과 독자적인 3면 영상기술을 활용한 (주)KSI 스포츠 체험시설 등을 전시하고 있다.

한편 개막식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및 산업자원통신부 장관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호 기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관리부실 '도마위'

예산군, '우월적지위 이용' 개인사업체에 보조금 책정 주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 개인사업체에 수천만원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예산군에 따르면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사업 농정유통과 농산물유통체계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관련 도비 2260만원, 군비 5240만원 총 보조금 7500만원이 A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00식품회사에 배정됐다.

앞서 충남도는 공고 제2015-

525호에 의거 '2015년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공고를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전통·발효식품육성 5개소에 개소별 1억5000만원(도비226, 시군비 524, 자부담 75)을 징류, 김치 등 발효식품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 및 공장 신·개축에 지원 한다는 공고를 일선 시·군에 5월 시달했다.

문제는 사업주체의 대표가 예산군의회의원이라는 직위에 있어 군민들은 의아해하며 금지 않은 시

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

주민 B씨(남·59)는 "예전에도 이러한 일들로 인해 온갖 흥흥한 이야기가 방송과 신문지면을 도배하며, 예산군 군의회의 명예를 실추 시켰는데 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며 지역구 의원이라면 기본적인 법과 윤리강령 정도는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숨을 토했다.

한편, 예산군 관계자는 사업이 인사 이동전에 확정된 사업이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업자들 간의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내포=이지용기자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행복을 이끄는 청양군 의회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회!!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활동!!
제2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 **개 의** : 2015년 9월 14일 10시 본회의장
▶ **기 간** : 2015. 9. 14. ~ 9. 23.(10일간)
▶ **내 용** : 군정에 관한 질문
포례제 · 개정안 등 처리

※ 청양군의회는 언제나 군민여러분의 의견과 제안·방향을 환영합니다.
청양군 의회사무과 ☎041-940-2504 / 홈페이지 http://council.cheongyang.go.kr

청양군의회

결과물 안내도 연구비 환수 안해 혈세 ‘펑펑’

참여제한 조치 끝나도록 결과물 미제출 연구자 28명, 연구비 5억7천만원 먹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내지않아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연구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과물 미제출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연구자는 총 1,344명으로 2012년 286명, 2013년 463명, 2014년 528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결과물을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지급된 총 연구비가 476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환수가 결정된 것은 2천만원에 불과했다.

이중 현재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총 634명에 지급 연구비는 185

억원에 달했으며, 끝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기간 만료로 해제된 연구자도 28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국 민 혈세 5억7천만원은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사라진 셈이 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학술진흥법 제 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비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먹튀 연구자들에 대해 연구비 전액 환수 뿐만아니라 제재부 가금 등 패널티를 강화하여 연구자의 모럴해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대전시의회 복환위, 정수원 현정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복지향경위원회(위원장 안필용)는 10일 제221회 임시회기간 중 명암그린공원, 정수원, 대덕구시니어클럽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청취하고 현정을 점검했다.



<국감>이명수의원 '질병관리본부 기능 문제' 진단

향후 국가방역체계 개편 통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확대의 조기 추진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9월 10일(목)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와 혼란 가중 등으로 질병관리본부 방역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감염병 예방·선 제적 대응을 위한 권한이 전제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감염병 예방법」상 의무·권한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질병관리본부가 유사시 他부처의 행정력 동원이

곤란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 때문에 메르스 발생 15일 만에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 장(5.20), 복지부 차관(5.28), 복지부 장관(6.2)으로 바뀌는 등의 혼란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제고 및 전문성 격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예산권 보장 등이 개편안에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실천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 금품 수수 등 비리 무더기적발

한국시설안전공단 2015년 징계 적발 9명,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 공공기관 이미지 추락

박수현 의원 "공공기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보다 근본적인 개혁 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금품 수수 등 비리의 무더기 적발로 인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급추락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를 기록함으로써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 원(충남 공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징계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건, 2012년 0건, 2013년 1건, 2014년은 2건인데 반해 2015년 징계 현황은 8월말 현재 무려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드러난 비위 중 그 정도가 심한 사기공모 및 금품수수수는 5건이 조사되었으며, 세 명이 파면 처리되고 두 명은 아

직 재판중이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4년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D등급)를 기록하며 기관장은 해임 위기에 내몰렸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개선의 중추적인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1급~3급의 실장과 부장들이 금품 수수나 직무관련 향응 수수로 무더기 적발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바근해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비리가 무더기로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윤지상 의원 "작은 도서관 문화공동체로 전환 필요" 제기

단순 지식 공유 장소 벗어나... 문화·정보의 균형 맞추는 문화공동체 질실



충남도의회 윤지상의원(새누리당)이 전국에 '아이 숲' 작은 도서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작은 도서관을 기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현장지원봉사단 구성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시설 중심으로만 온

영됐던 작은 도서관을 문화, 역사, 독서, 생태여행 등 도민이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 현장지원 봉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각 지역에 능력 있고 열정 있는 봉사자를 모집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외되고 낙후한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가 절실하다"며 "단순히 책만 읽는 것에서 벗어나 체험 등 문화의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광주 '아이 숲 작은 도서관'과 전북 익산 '동산 작은 도서관', 아산 '배방읍사무소 어린이 북카페'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윤 의원은 "아이 숲의 경우 주부

들과 시민단체가 도서관관립위원장, 회를 조직, 역사와 문화, 생태여행 등 지역민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동산 도서관 역시 공부방과 재능기부 등 문화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작은 도서관이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내 작은 도서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낙후된 것이 사실"이라며 "도서자료 전산화 미흡, 전문 사서 인력 부족, 시설 노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도서관은 예전처럼 단순히 책을 대어주고 학습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장소로 발전해야 한다"며 "지역 내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행자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 마련해야"

정웅기 의원,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

명확한 입장 표명 및 미래부의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 촉구



정우기 의원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적, 정치적, 행정효율적 측면 등 여러 면에서 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무성인한 추진과 홍보로 최근 미래부 과천 잔류 논란을 자초했다고 질타하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 및 미래부의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웅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10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적, 정치적, 행정효율적 측면 등 여러 면에서 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무성인한 추진과 홍보로 최근 미래부 과천 잔류 논란을 자초했다고 질타하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 및 미래부의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2차례의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신설되었다.

이 가운데 행자부가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제

16조 제2항에 명시된 "안전행정부"를 계승한 것으로 전제할 경우, 나머지 4개 부처는 모두 세종시 이전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세종시에 임시 배치된 해수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는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달 25일 '제10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황교안 총리의 지시에 따라 미이전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는 행자부는 이달 8일 모일 간지에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공청회 공고를 게재한 바 있다.

하지만 직후 "미래부 과천 잔류"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이관 및 이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다투어 비난성명을 내면서 정부·여당의 행복도시법 이행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웅기 의원은 "이전계획 수립의 주무부처인 (구안정행정부) 자체가 그간 세월호 사건 등 각종 이슈는 물론 3개 부처로 나뉘는 우려 국면이 있었고, 청사마련, 예산 등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대전·충청권

국회의원으로서 참모로 답답한 상임위에서 세종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일을 해왔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차원에서는 가시적인 이전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계속되어 왔다"면서, "그 결과 현실적으로 준비가 용이한 안전처와 인사처의 이전을 먼저 발표하게 된 것으로, 사실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웅기 의원은 "문제는 행자부가 일을 추진하면서 적극적 홍보나 명확한 설명 없이 마치 미래부의 과천 잔류가 결정된 것처럼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면서, "일만 해놓고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그간 정부·여당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셈"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부 이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준비해서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 지어야 한다"면서, "이전대상 기관을 수도권에 남겨둬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신속히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정복기자

아산테크노밸리 잔여지 매각 공고(안)

1. 매각대상의 표지 (20필지, 1,431㎡)

no	소재지	자본	지목	면적(㎡)	잔여면적(㎡)	no	소재지	자본	지목	면적(㎡)	잔여면적(㎡)
1	병곡리	298-23	과수원	127	13,335,000	11	석곡리	285-21	과수원	6	666,000
2	병곡리	298-13	간	126	14,000,000	12	석곡리	285-22	과수원	3	303,000
3	영곡리	296-19	간	121	11,495,000	13	석곡리	285-24	간	1	101,000
4	석곡리	7-7	간	107	20,570,000	14	석곡리	285-25	간	37	3,737,000
5	석곡리	101-12	과수원	142	19,026,000	15	석곡리	626	간	58	5,858,000
6	석곡리	114	간	292	40,980,000	16	석곡리	627	임야	7	329,000
7	석곡리	125-5	임야	19	1,345,000	17	석곡리	627-2	임야	8	376,000
8	석곡리	101-50	임야	17	1,207,000	18	유곡리	3-20	과수원	28	2,829,000
9	석곡리	285-5	간	1	95,000	19	함포리	107-2	담	46	9,936,000
10	석곡리	285-18	임야	1	101,000	20	유곡리	108-9	담	206	44,456,000

※ 행자 부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소재 토지이며, 매각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2. 매각방법 : 현액순 수익계약(각 지번별 개별 매각으로 동일인인 2개 이상 지번에 대한 중복 계약도 가능)

3. 계약제결 및 대금 납부 방법

가. 계약시기 : 2015. 9. 11.부터 수시

나. 계약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관방로 199, 15층(안정행, 대영빌딩)

다. 대금 납부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일시	비고
계약보증금	매매대금의 10%	매수 신청시	
잔금	매매대금의 90%	계약 체결일	매수 신청후 2주일 이내

※ 계약보증금 입금시 계약대당자로 지명되며, 계약대당자는 입금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구비서류

-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 법인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 양계서류,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4. 기타 사항

가. 매각제안은 아산테크노밸리 단지 지구계 외에 위치한 토지이며, 현장에도 불구하고 공무방 표시를 기온으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매수 인영 면에 현장당사 및 각종 공부, 현명명 규제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매수자는 토지비용 시 인영토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훼손 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계좌 : 연안은행 022-5100-4439-870 (주)아산테크노밸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주)안원도지개발 보성빌드 031-8014-7072

2015년 9월 11일

(주)아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입학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 ... 다양한 인재 육성”

목원대학교

목원대학교는 1954년 대전지역 최초의 사립대로 출발한 목원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61주년을 맞았다. 기독교 정신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목원대는 44만 5050㎡의 넓은 캠퍼스에 8개 단과대학 학부생 8,966명과 3개 대학원 석·박사 595명이 재학 중이다.

목원대가 지난 61년간 배출한 졸업생은 4만 6,947명으로 그중에서 3,600여명의 목회자를 비롯해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사범대학을 통해 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유아교육 등의 분야에서 1,600여명의 교사를 배출했다. 한강이남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음대·미대는 그동안 문화예술발전을 선도해오며 수많은 예술가를 탄생시켰다. 목원대는 지난 1999년 중구 동명에서 현재의 서구 도안동 캠퍼스로 이전해 15년을 맞이했다. 캠퍼스 주변에는 도안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라 282만명의 친환경 생태도시가 들어섰고 30만 명의 인구가 유입돼 대전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떠올랐다. 주변의 체육공원, 등산로와 아름다운 생태공원이 캠퍼스와 조화를 이뤘다. 학생들에게는 최상의 교육환경을, 지역민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대전의 새로운 중심대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대전투데이는 수험생들을 위해 목원대학교의 201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 2014 교육부 잘 가르치는 대학 학부교육 선도 대학 ACE 선정

목원대가 교육부로부터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교육부로부터 연간 22억원, 4년간 총 88억원의 지원을 받는 목원대 학부교육선도 모델은 배려, 자존감, 자기관리, 비판적 사고, 글로бал마인드의 5대 핵심역량을 갖춘 '체험기반 IMAGE+ 창의인재 양성'으로 이의 실천을 위해 EIU 통합 학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학생들의 학업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IMAGE+ 체험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인문 감성의 교양교육 지원을 위한 창의인재교육센터(인문감성의 숲)를 운영하고 있다.

교수는 마음껏 연구하고 가르치고, 직원은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일하고, 학생은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학생들의 실력과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원대의 교육 목표이자 철학이다.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인성과 지성을 갖춘 교양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양교육원'을 통하여 교양 교육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 취업육성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SMART Biz-Campus를 구축하여 청년 창업을 돕고 있으며, 교내에 맞춤형터와 지식서비스 특화창업보육센터, 디지털영상콘텐츠센터, 창업진흥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우수한 장학제도와 유학제도

매년 100여종의 다양한 교·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평가에서 장학금 수혜율 A등급을 상회하는 장학 혜택을 자랑하고 있다. 2016학년도 신입생 중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들이 우리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인문·사회계열(일반학생·사회적배려자·지역인재·목원사랑인재)은 80만원, 이공계열, TV·영화학부(일반학생·사회적배려자·지역인재·목원사랑인재)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난 1994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3+1유학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세계 18개국 70여개 대학들과 학술 및 학생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학 중 해외 유학 프로그램과 더불어 방학기간 등을 활용한 글로블리더스아카데미 과정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재학생들에게 업무현장에서 요구되는 영어의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국제교류 감각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글로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목원대만의 특징적인 '열린 학사제도'

목원대는 열린 학사제도를 통하여 학과 간 이동의 문이 넓다. 즉, 복수전공과 전과가 용이하다. 복수전공은 입학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2학기 이상 등록하고, 1학년 이상 수료(일반학과(부) 34학점 이상, 사범대학과 공학교육인증 실행학과(정보통신융합공학부, 신소재화학공학과)는 36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체능계 복수전공을 원할 때는 실기고사에 합격

▲ 2014 대학 특성화사업 4개 사업단 선정

교육부에서 2014학년도에 새롭게 추진한 CK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에 대학자유형의 ICT기반 유니버시티디자인 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단(정보통신융합공학부·산업디자인학과), 국가지원형의 Neo K·Culture 컬러 콘텐츠 개발 인재양성 사업단(광고홍보언론학과·중국학과·역사학과), 통일을 대비한 사회통합형 종교지도자 양성 사업단(신학과), 미래 생명자원 발굴·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미생물나노소재학과·생의약학)·장종학부·의생명·보건학부 등 총 4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연간 17억 9천만원(5년간 총 89억 5천만원)의 특성화사업비를 모두 학생경비로 사용하여 대학의 교육여건과 학부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경쟁대학 대비 구조개혁대행평 등에서 대학 경쟁력을 확보, 비교우위를 선점하여 대학의 지속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 입학에서 취업까지!

목원대학교는 지난 1954년 중부권 최초로 설립된 기독교 명문사학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가치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이다. 2014 교육부 잘 가르치는 대학, 지식경제부 RIC 사업선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 IT 분야 우수대학 및 대학원으로 선정, 교육부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등 수험생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명문사학의 메카이다.

또한, 입학에서 취업까지! 'One Stop Service' 라는 전 방위적인 학생지원을 위하여 인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별 현장중심 맞춤형 전공교육과 학생-학교-기업이 트리플을 이룬 3단계 취업지원시스템인 '취업지원 선순환시스템', 진로탐색-진로지도-경력개발과정을 연계시키는 One-Sto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취업전담교수제도와 취업전략인증을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야 한다. 또한, 전과(부)는 자신이 속한 학과(부)의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을 경우 전공을 변경하는 것으로 재학 중 1회에 한 해 가능하다. 1학년 2학기 말이나 2학년 1, 2학기 말에 신청할 수 있다. 예체능의 전과도 실기고사에 합격해야 한다. 전과 기회는 통상 3번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 전과의 문이 많이 열려있다. 특히, 비사범계 학부(과)에서 사범계 학과로의 전과가 가능(정원 10%내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음악대학에서 음악교육과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사범계로의 전과를 위해서는 면접고사와 각 학과별 전공시험을 거쳐야 한다.

▲ 꿈과 열정이 있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목원대학교의 모토는 '꿈과 열정이 있는 건강한 교육공동체'이다.



▲ 목원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 모집 안내

(학생부 교과전형 일반학생, 사회적배려자, 지역인재 학생부 80% + 면접 20%)
[학생부 교과전형 일반학생 : 사범대학(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학생부 70% + 면접 30%]
목원대학교는 2016학년도에 총 1,916명(정원내)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 중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일반학생, 사회적배려자,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목원사랑인재), 실기위주(일반학생, 특기자), 정원의(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등 대상자)모집 등을 포함하여 총 1,457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수시 전형별 모집인원은 학생부 교과전형(일반학생 763명·사회적배려자 24명·지역인재 159명), 학생부 종합전형(목원사랑인재 140명), 실기위주 전

형(일반학생 240명·특기자 25명)을 선발한다.

또한, 정원의 선발은 학생부 교과전형(농·어촌 학생 74명, 특성화고교출신자 10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명, 장애인등 대상자 약간명) 104명을 선발한다.
성적반영 방법은 학생부 교과(일반학생·사회적배려자·지역인재)학생부 80% + 면접 20%, 단 사범대학(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만 학생부 70%, 면접 30%, 예·체능계열은 학생부와 실기고사를 반영하여 선발하는 반면, 음악대학은 특별히 실기고사 성적 100%로 선발한다. 학생부는 음악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반영 교과수는 총 4과목이며, 반영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교과별 1과목씩 이수단위가 높은 학년별 4개 과목을 반영한다. 2016학년도에는 특별히 수시모집에 학생부 중

합전형(목원사랑인재)를 시행한다. 총 26개학과(부에서 14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형방법은 단계별 전형이다. 1단계는 서류 100% 학생부(교과,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서류평가 비율 하여 모집정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는 면접으로, 1단계 서류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진행된다. 1단계 서류 전형 성적 50%와 2단계 면접 성적 50%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 오후 7시 까지 인터넷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입학상담은 입학관리과 042-829-7111~3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2016학년도 수시, 전형별 반영비율 꼼꼼히 체크해야”



유장원 목원대학교입학처장

▲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적면과 달라진 점은?

목원대학교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일반학생, 사회적배려자,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전형(목원 사랑인재), 실기위주전형(일반학생, 특기자)으로 핵심 전형요소 위주로 표현화된 체계 내에서 전형을 시행하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교과성적 반영방법이 음악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반영 교과수는 총 4과목이며, 반영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교과별 1과목씩 이수단위가 높은 학년별 4개 과목을 반영한다.

▲ 수시지원의 팁을 준다(면접요령, 유의사항 등)

목원대학교 수시지원 시 팀으로 지원요령은 학생부 교과(일반학생·사회적배려자·지역인재)는 학생부 80% + 면접 20% 반영하고, 사범대학(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은 학생부 70%, 면접 30% 반영함으로써 면접반영비율이 높은 편이며, 예·체능계열은 학생부와 실기고사를 반영하여 선발 하는데, 음악대학만 특별히 실기고사 성적 100%로 선발한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목원사랑인재)은 1단계 서류평가(학생부교과, 비교과), 2단계 1단계 성적 50% + 면접 50%로 선발함에 따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수험생들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수시 지원 시, 유의사항으로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최대 6회로 제한되며, 6회를 초과하여 원서접수를 시행한 것이 확인되면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시간 순서상 6회 초과점 접수는 취소 처리된다. 수시모집 지원방법(6개 전형 이내 지원가능)은 문과에서 이과로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형유형(정원내/정원의 포함)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단, 전형내에서의 모집단위별 복수지원은 불가하다.

▲ 학생들이 눈여겨 볼만한 학과를 소개해 주신다면 (특성화학과 소개)

교육부에서 2014년도에 새롭게 추진한 CK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에 대학자유형의 ICT기반 유니버시티디자인 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단(정보통신융합공학부·산업디자인학과), 국가지원형의 Neo K·Culture 컬러 콘텐츠 개발 인재 양성 사업단(광고홍보언론학과·중국학과·역사학과), 통일을 대비한 사회통합형 종교지도자 양성 사업단(신학과, 미래 생명자원 발굴·활용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미생물나노소재학과·생의약학)·장종학부·의생명·보건학부) 총 4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특성화학과는 17억 9천만원(5년간 총 89억 5천만원)의 특성화사업비를 모두 학생경비로 사용하여 대학의 교육여건과 학부교육의 질을 향상하게 되었고, 특히 경쟁대학 대비 구조개혁대행평 등에서 대학 경쟁력을 확보, 비교우위를 선점하여 대학의 지속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성화학과들을 눈여겨 볼만하다.

▲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장학금 혜택을 소개해주신다면요.

매년 100여종의 다양한 교·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평가에서 장학금 수혜율 A등급을 상회하는 장학 혜택을 자랑하고 있다. 2016학년도 신입생 중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들이 우리 대학에 등록할 경우 인문·사회계열(일반학생·사회적배려자·지역인재·목원 사랑인재)은 80만원, 이공계열, TV·영화학부(일반학생·사회적배려자·지역인재·목원 사랑인재)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수험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목원대학교는 자신의 꿈과 끼 그리고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자의 지역, 가정환경, 졸업한 고교의 특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평가하여 잠재력과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대전지역 최초의 사립대학으로서 전통적인 명문 학과와 새 시대 새로운 경향의 신설학과가 조화를 이룬 중부권 명문 종합 대학교 목원대학교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 양성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ACE대학, 특성화된 대학, '꿈과 열정이 있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목원대학교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 동 정 ●●●

2015 대전사회복지대회



설동호 대전사회복지센터장은 11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5 대전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한다.

2015 대전사회복지대회



김인식 대전사회복지정책의회의장은 11일 오전 11시 30분 대전후계아트홀에서 열리는 '제26회 대전시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참석,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15 대전사회복지대회' 참석.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한현택 동구청장은 11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제26회 한마음 아하 졸업식



박광갑 중구청장은 11일 오후 7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26회 한마음 아하 졸업식' 참석.

공무원 체협교실 참여 학생 격려



장동태 서구청장은 11일 오후 1시 40분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체협교실'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을 격려.

제5회 세미레 한마음 축제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11일 오후 6시 반석동 세미레공원에서 열리는 제5회 세미레 한마음 축제 참석.

중촌문화복지관 개관식 열려

주민자치문화공간으로 탄생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10일 중촌지역 주민들의 문화거점공간 역할을 할 중촌주민자치센터내에 중촌문화복지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촌동 주민센터 앞에 위치한 중촌문화복지관은 지상 4층 연면적 490㎡로 지난 7월 말 리모델링을 마친 후, 주민 스스로 자유롭게 즐기고 배우고 발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복지관은 기능과 용도에 따라 주민 접근이 편리하도록 1층은 실버공간, 2층은 마을운동과 서예교실, 3층은 노래교실과 마을합창단, 4층은 yoga, 스포츠댄스, 웰빙댄스 교실 등이 운영된다. 허미영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모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민자치센터가 생겨 기쁘다"며 "주민이 화합하는 공간으로 창출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옛 충남도 관사촌과 대전 원도심 활성화 워크숍 열려

문화재생 활용가치 방안 강구

대전시(도시재생본부장 박월촌)는 10일 오후 2시 대전테마예술창작센터에서 옛 충남도 관사촌과 대전 원도심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는 성균관대학교 윤인석 교수의 '옛 충남도 관사촌의 역사와 장소성', 황순우 건축사의 '장소성의 재탄생을 위하여', 그리고 한승욱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의 '충남도 관사촌과 대전 원도심'이라는 주제 발표 후 원도심의 문화재생애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옛 충남도 관사촌은 2012년 충남도청이 흥성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관사 10개동도 빈집으로 남겨져 있어 앞으로 대전시는 이 지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 지역으로 사람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 젊은 사람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누구를 위한 공간으로 해야 할지 소통과 융합으로 문화재생애를 통해 문화재생애를 활용가치를 찾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예술가 레지던스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전테마예술창작센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옛 충남도 관사촌을 매입하여 이곳에 전시관, 창작촌, 작가촌,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새롭게 재구성해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대전상의, 제178차 대전경제포럼 개최

갈등 관리는 곧 기업의 경쟁력

대전상공회의소(회장 박희원)는 10일 오전 7시 유성호텔 3층 강홀에서 '제178차 대전경제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혜숙 세계경영연구원 교수 강사로 초청, '갈등, 거침없이 즐겨라(갈등관리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지역의 미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공인 모두가 앞장서서, 고용충출과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서 이혜숙 교수는 "조직 내 갈등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갈등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CEO는 갈등을 관리하는 데에 대한 토론과 논쟁,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에서 이혜숙 교수는 갈등을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타고난 성격이 달라 갈등을 일으키는 '성향충돌'에 대해서는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고 다름에 대해 이해하는 자세를 갖추는 한편, 본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의 경우 공통적인 욕구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개인의 가치가 상충해 발생하는 '가치충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다는 가정 하에 상호 공통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조직 내에서 구조적으로 갈등을 빚는 '구조충돌'의 경우 상호 몸을 바피어 인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실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해석충돌'의 경우, 상대방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정성욱 대전계발위원회 회장, 김한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오상영 KEB하나은행 충청영남부장 대표 등 포럼회원, 기관단체장, 기업인,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송병배 기자

대전미디어페스티벌 16일 개최

시민이 미디어의 주인공이 되는 '2015 대전미디어페스티벌' 대전 다중(다큐)가 오는 16일부터 4일간 엑스포과학공원 내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에서 열린다. 대전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꿈, 소통, 행복'을 주제로 시민이 다양한 미디어를 수단으로 자신과 대전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참여·체험형 행사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뉴스제작 경진대회 ▲시민명상 공모전 시상식 및 상영회 ▲1인 방송 '마이텔레비전' ▲시민라디오 제작단 '보이고 들리는 라디오' ▲마을미디어 한마당 ▲학교 미디어 교육 및 상영회 ▲더빙-폐쇄자막 제작 체험 등이 마련돼 미디어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5인 이상의 학생이 팀을 이뤄 방송 뉴스 제작 기량을 겨루는 학교 뉴스경진대회가 페스티벌 개막전인 14일부터 예선을 시작하며 오는 19일 결선을 치르게 된다. 다양한 상영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대전'을 주제로 시민 UCC 공모전 '대전다큐(다큐)' 상영회,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작품 상영회, 어른신이 제작한 시니어 영상전, 배리어프리 영화 '터치 오브 라이트' 등이 시민과 함께 한다. 또 '뉴스사람' 생방송으로 유명한 박대기 기자 초청 강연, 강현숙 CC코리아 사무국장의 저작권 강의 등 다양한 특강도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민이 미디어의 세계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고전영화 더빙 체험', 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방송제작 체험, 집에 보관된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파일로 변환해주는 코너, 청소년 '미디어 글든'등도 열린다. 이번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blog.naver.com/medianur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042-865-37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호 기자

공동주택관리 민·관 합동감사 실시

시, 장기수선충당금·사업자 선정 입찰 부적정 등 42건 지적

대전시는 아파트 관리·운영과 관련된 입주자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지난 8월 분쟁 및 감사 요청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회계·주택관리·시공 등의 민간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입주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신청하거나 입주자 10분쟁으로 미리 및 민원을 제보한 중구지역 아파트 3개 단지, 유성구 지역 아파트 1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합동감사에서 총 42건이 지적되었고, 공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16건 지적되어 아직도 입찰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부과내역 승인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 승인 시 의결 정족수 미달됨에도 의결처리하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없는 동별 대표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반영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 집행, 일방경정입찰 대상인 200만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관리·회계·입찰분야 등 다양한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이영호 기자



시설관리공단-대덕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성폭력·인권침해 예방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근종과 대전대덕경찰서(서장 권순규)는 지난 9일 장애인 권익증진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무지개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대전시설관리공공단과 대전대덕경찰서는 지역의 중증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 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설관리공단 무지개복지센터에서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앞장설 계획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건강하고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영호 기자

대전세계양봉대회 및 Bee! Bee! 축제 15일 개막

양봉산업 발전·꿀벌의 가치 재 조명

'제44회 2015대전세계양봉대회'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와 무역전시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세계양봉연맹(APIMONDA)이 주최하는 세계양봉대회는 1897년 벨기에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래 118년의 전통을 지닌 양봉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꿀벌! 세계를 하나로(Bee! Connecting the World)'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130개국의 양봉관련 학자와 연구기관, 기업관계자 1만여 명이 참가하여 총회, 학술회의, 전시회 등 양봉관련 기술교류와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각각의 양봉산

업 발전과 꿀벌의 가치를 재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봉대회는 학술발표와 전문기술 또는 정보교류 위주의 행사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회 개최를 계기로 일반시민과 대회 참가자 등 누구나 함께 참여하여 벌과 농업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지구촌 축제로서 'Bee! Bee!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Bee! Bee! 축제는 15일부터 19일까지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되며, 양봉과 농업관련 35종의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주요 프로그램으로

동구-이마트 '희망나눔 바자회' 펼쳐

판매수익금 전액 기부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10일, 구청 잔디광장에서 동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병석)와 힘을 모아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돕기 위해 펼친 '이마트와 함께

하는 희망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이마트 대전터미널점·둔산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율령점에서 후원한 2만여 점의 의류,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총 1억 원에 상당하는 다양한 품목을 거의 대부분 1,000원~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참여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구에 따르면, 이날 바자회 판매 수익금 전액은 동구만의 대표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과 동구자원봉사센터에 기탁되며, 미판매된 물품은 동구자원봉사협의회 앞말매장 및 '모이모이 기부데이'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바자회를 통해 주민들이 저렴하게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동시에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실현됐다"며 "이윤과, 전폭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이마트 및 관계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영호 기자

호서대 세계 3대 디자인 7년 연속 수상

올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여 국내외적 최고 수준 국제적 디자인 경쟁력 보여주고 있어

호서대학교(총장 김일구) 산업디자인전공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1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컨셉디자인 부문에서 국내대학 1위(아태지역 대학 12위)를 랭크했다고 10일 밝혔다.

레드닷(Red dot)은 IF,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최근 5년간의 수상 실적을 누적하여 2015 랭킹을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수상 누적 순위를 발표하는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세계대학 13위, 국내대학 2위의 실적을 거뒀다.

또한, 호서대 산업디자인전공은 레드닷, IF, IDEA 등 2015년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에서 7년 연속 수상을 달성하였다. 그리



고 2012년, 2013년 2년 연속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그랜드슬램 달성'에 이어

2015년에도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여 국내외적으로 최고 수준의 국제적 디자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단비 산업디자인전공 주임교수는 "디자인의 국제화란 큰 흐름에 발맞추어 특화된 전공 수업과 함께 혁신을 주도하는 융합형 디자이너를 배출하고자 학생들의 도전의식을 고취한 것이 국제디자인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밝혔다.

호서대 산업디자인전공은 디자인의 국제화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산업맞춤형 디자인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며, '벤처 디자인의 활성화'로 디자인을 통한 창업을 고취시키는 등 Life Creator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디자이너 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4개 조례 11개 법규이탈 중 공포 예정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시민들의 불편이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불합리한 자치법규 11건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치법규 일괄 개정에는 국토, 산업, 건축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와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등과 관련한 법규정비로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지난 8일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4개 조례 11건의 조항으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도시공원 점용허가 취소시 점용료 환불,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개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의 개선사항이다.

또한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준주거,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 상향을 비롯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의심의를 기간을 60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 시민의 삶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편의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기획담당관실 규제개혁팀 신경희 담당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거나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손톱 밑 가시와도 같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폴리텍대 인내·끈기·노력 아름다운 결과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4개 조례 11개 법규이탈 중 공포 예정



아산캠퍼스는 2년전 처음 출전하여 장려상 1명의 성적을 냈고, 이번대회에서는 방학 중 짧은 기간 동안 준비했음에도 장려상 2명(자동차기계과 2학년 임수길, 정명환-Mold금형부문)이 수상했다.

대학관계자는 "내년에는 1학년생들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2학기 동안 준비시켜 동상이나 은상 등 더욱 우수한 성적에 도전해 볼 계획이다. 수상은 못했지만 성실히 임했던 2학년 김영우, 라현승 학생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으며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며 "이번 결과도 인내 그리고 끈기와 노력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취업을 의의하거나 학교를 방문한 회사 대표나 임원들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성실하고 인성이 좋은 학생들로 교육시켜 주세요. 저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학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청양군은 10일 2015년도 2기분 및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1만5408건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 호소에 나섰다.

이번 2기분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는 소유기간을 일괄 계산해서 부과된다. 특히, 시설물 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번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며,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

액은 납부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지로(www.gi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비용, 환경오염 방지 시설 사업비 등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청양=정상범기자

내수활성화와 어려운 이웃돕기 위해 사랑나눔행사

중소단체장들, 통시장 물품 구입해 복지시설에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호철)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이번 행사는 내수침체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불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명절나기기를 위해 실시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1500만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후원)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함으로써 일석이조의 지원 효과를 보았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수살리기 추진단'과 함께 장보기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내수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중앙회 전원식 대전충남지역회장은 "이번 추석에는 저렴하고 질 좋은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고, 연휴기간동안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관광지로 나들이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웃음이 가득하고 잠 잘 넘치는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국립종자원 종자 유통조사

김장용 채소종자·버섯종균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김일환)은 채소종자 및 버섯종균 등 생산·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판매지역 : 충청남도 13개 시·군(논산·금산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4개 시(수원·오산·평택·화성)

이번 유통조사는 채소종자와 버섯종균의 유통 실태와 종자산업법규 준수 여

부를 확인하여 불법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의 적정성 등이며, 불법으로 생산·판매 행위자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종자유통 관리제도에 대한 정보습득하기 어려웠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한다.

영세한 종자업자, 신규 종자업 등록업

체 및 시·군 종자업 등록 담당자에게 생산판매신고와 품질표시 등 종자유통 관련제도를 제공함으로써 규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소비자는 종자를 구입할 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내용을 확인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자의 품질표시는 ▶품종명칭 ▶수량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생산연도(포장연월) ▶재배상 주의사항 ▶수입연월 및 수입지명 ▶종자업등록번호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산=리량주기자

1 친환경적이다 (Eco-Friendly)

콘크리트가 아닌, 친환경적인 황토 벽돌과 나무골조를 사용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느낌과, 질서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황토가 가지고 있는 수렴 비열효과가 실내에서 나오는 폭을 제거하고 우리 몸의 열기관을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과 건강 관리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2 난방비 절약 (Economical)

흔히 말하는 황토 집 온돌방(광돌방)이 바로 이 편을 가릅니다. 추운 겨울날, 이집안에 불을 때면 집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과, 구조적 특징으로 강한 습도와 온도조절 기능 그리고 공기 청정기능으로, 다른 날은 시원하게,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석양의 비닐로 같이 과열되어 인화되는 위험성도 없고, 보일러나 맥난로같이 화재와 고장도 염려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전통적인 미 (Traditional Beauty)

한옥은 기둥 위에 '도리'라는 부재를 올리고, 그 위에 '서까래'라는 부재를 올려서 지붕의 구조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치마의 형태가 구조적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기둥의 전통성과, 구조제도 쓰인 나무와 황토의 색깔, 그리고 흙 대담이 우리나라 전통 양식과 아름다움을 줍니다.

Mode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910-442-4972

Best Plan 대표 박정호

010.7472.4972

pjmin1456@hanmail.net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주관 · 화합 위한 자리

대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막 올랐다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주관 (회장 권선택)으로 대전지역 장애인생활체육인들의 화합을 위한 제26회 대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즐거워 화합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전지역 장애인들과 보호자 그리고 비장애인 등 4,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0일 어울림놀이문화축제는 3,700여명이 참가하여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옛날 학교 운동회의 향수를 느끼는 뜻 깊은 이벤트가 되었다고 좋아했다. 또한, 떡메치기와 팝콘튀기기 등 각종 참가 이벤트는 준비된 물량이 부족할 만큼 참여도가 높았다.

11일부터 시작되는 14종목의 생활체육경기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선수 1,000여명이 참가해 동호인대항전을 겨룬다.

시와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이번 대회의 성과는 종목별 동호인 대항전의 자리매김과 단순한 장애인체육행사 아님 모두의 체육축제로서의 발전이라 평하며, 앞으로도 이 대회는 체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대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추석연휴 도로 안전 대전국토청 책임진다

관내 도로 시설물(장대터널, 재난위험시설) 및 건설현장 점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장 김일환)은 추석 연휴 귀성객의 교통안전과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3일부터 10일까지 관내 도로 시설물(장대터널, 재난위험시설) 및 건설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 중점 추진사항은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관내 주요 도로·하천의 재난위험시설, 건설현장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 유의사항 홍보 등이다.

대전국토청장은 국도1호선 계룡터널 관리사무소를 점검한 후 사전 재해예방 활동과 교통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태선기자

대전시티즌, 13일 전남과의 일전 앞뒤

전남과의 일전 앞둔 대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대전시티즌이 9월 13일 오후 4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전남드래곤즈와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3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대전은 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의 2차원드 홈 경기에서 2-4로 패했다. 제주를 상대로 홈 첫 승을 노렸던 대전은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대전은 제주 까랑가리 선제공포로 로페즈의 헤트트릭에 고전했다. 김태봉과 김중국이 각각 전반 27분과 전반 47분 연속 골을 터뜨리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추격하던 중 한의권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는 등 불운한 모습도 보였다.

A매치 휴식이 동안 선수들의 체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대전은 이번 주말 전남 원정에 나선다. 지난 5월 열린 전남 원정에서 대전은 광방전을 벌였으나, 0-0 무승부에 그치고

김정환기자

국세청 공직기강 해이 ‘심각’

2010년 비리징계 89건, 2014년 183건으로 2배 증가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2014년말 183명으로 지난 2010년 89건 대비 2배가 넘는 것으로 국세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의원은 2010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이 14명, 정직·강등·감봉·견책이 75건인 반면, 2014년 파면·해임·면

직 등 공직추방이 26명, 정직·강등·감봉·견책이 157건으로 각각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밝힌 2014년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총 2,308건 중 경찰청 834건, 교육부 588건, 미래창조과학부 151건, 국세청 183건, 법무부 122건 순으로 가장 많은 징계조치를 받은 경찰청이 총징원 1만942명 중 834건으로 발생률이 0.75%이나, 국세청은 2만48명 중 183명 발생률은 0.91%로 현저히 높다고 밝혔다.

특히 파면·해임 등 공직추방건수는 2014년 총 징계건수 2,308건 중 215건으로 평균 9.3%이나, 국세청의 경우 징계건수 183건 중 26건 14.2%가 공직추방으로 전체 평균보다 5%나 높아 금품수수 등 강력 비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오는 23일 추석맞이...

‘추억의 콩글대회’ 열려

6, 70년대 농촌에서 명절이면 꼭 열리던 빅 이벤트 ‘추억의 콩글대회’가 오는 23일 저녁 7시 청양 대치면 구기자타운 야외무대에서 재현된다. 청양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음악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고 옛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만남, 소통, 화합’을 주제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청양문화원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원하는 군민들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해 벽을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신명나는 음악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절미 떡메치기, 민속놀이 체험 등 식전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며 경품추첨과 입상자 및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어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참가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접수 받으며, 행사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20여팀을 선발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청양=정성범기자

K-water, 건설업체 불공정 행위 근절에 매진

진존하는 공기업과 건설업체간 불공정관행 개선 위해 앞장

K-water 사장 최계은은 아직도 진존하는 공기업과 건설업체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제도를 운영하여 하도급업체와 건설분야 종사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경제정의에 앞장서고 있다.

K-water에서 현재 시행중인 총사업비 10억 이상 건설현장 66개소를 올해 1월부터 순회하면서 건설업체 및 건설분야 종사자와 간담회를 시행하였다.

정당한 조직문화 조성과 불공정 해소 조기 정착 그리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소개와 교육으로 건설업체를 독려하고 있으며, 순회간담회와 함께 건설현장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여

불공정사례와 애로사항을 20여건 접수하여 모두 개선 또는 해결했으며, 대금지급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하도급업체 대금 지불과 관련 불합확오등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0억 이상 건설현장 49개소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도 참여한 “사이버협업체”를 운영하고 건설통합관리시스템으로 24시간 무기명으로 불공정관행 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집된 사례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내 전담반”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불공정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제도개선 도움방”을 개설하여 수시로 제·개정되는 관계 법령과

정부지침 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9월 4일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관계기관 회의에서 설계변경 시 적정단가 반영, 예정가격 산정기준 적정 운영 및 계약상대치에 대한 권리제한 최소화 등 참석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우수한 노력과 활동결과를 인정받았다.

정구열 K-water 미래 기술본부장은 “공기업과 건설업체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K-water의 노력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관행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태선기자



중기중앙회 대전충남본부, 온누리상품권 1500만원 기탁

추석맞이 ‘사랑나눔활동’ 펼쳐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박호철은 추석맞이 사랑나눔활동을 위해 지난 9일 온누리상품권 1500만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온누리상품권은 대전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총 15개 기관 선정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14개 기관과 노숙인생활시설 1개 기관에

송병배기자

아산시 ‘개편 주거급여 제도’ 신청 접수

아산시는 주거급여 제도가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 주거급여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33% 수준에서 43%로 확대됨에 따라 4인가구의 경우 월 135만원에서 월 182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주거비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진료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낙천 도 수산연구소장은 “연구소 본연의 업무는 양식기술 개발과 종묘 생산·방류이지만 학생들에게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 견학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수산연구분야 관련 학교와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수산연구소는 보령시 웅천읍에 위치한 해수면개발과(☎041-635-7764)에서는 대화와 꽃게, 조피볼락, 황복, 해삼, 전복 등에 대한 시험 연구와 종묘 생산을, 논산시 연산면에 위치한 내수면개발 시험장(☎041-635-7784)에서는 칠갑상어와 붕어, 비단잉어, 큰장미새우 등에 대한 연구와 종묘 생산을 하고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백석문화대, 문용린 전(前) 교육부 장관 특강 진행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김영식의 인문학강좌 '백석 다빈치 아카데미'가 2학기를 맞이해 10일 예술대학동 콘서트홀에서 시작했다.

KT&G, 인니(印尼)에 대학생 커뮤니티 ‘상상univ.’ 연다

대학생 대외활동 커뮤니티 상상유니브(상상univ.) 인도네시아로 확대



KT&G가 국내에서 운영중인 대학생 대외활동 커뮤니티 상상유니브(상상univ.)를 인도네시아로 확대한다.

상상유니브는 대학생들의 문화적 소양 및 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운영중인 KT&G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실천 마케팅을 경험하고 코칭 받을 수 있는 '상상마케팅 스쿨', 취업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상상커리어킵' 등이 있다.

KT&G는 올해부터 이를 인도네시아로 확대해, 자카르타 현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강좌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커피 제조과정 등 실습하는 '바리스타 클래스'와 사진 기초강좌인 '포토 클래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 유명강사를 초빙해 각 클래스별로 6주간 수업이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 수익금은 전액 현지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2016년부터는 '자카르타 KT&G 한국어학당'과 운영을 통해 화해, K-POP 댄스, 영화, DJ 등 강외, 취업 관련 다양화하고, 각종 문화행사도 선보일 계획이다. '자카르타 KT&G 한국어학당'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문화 전파를 위해 지난해 3월 설립했다.

KT&G 관계자는 “KT&G는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상유니브를 해외로 확대하게 되었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수산연구소서 해양수산업 미래 보인다

충남해양과학고 학생 등 견학·방문 문의 잇따라



‘슈퍼 황복’이 만들어진 충남도 수산연구소가 수산생물 분야 연구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필수 현장견학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 수산연구소(소장 성낙천)는 10일 충남해양과학고 3학년 학생 24명이 연구소를 방문해 수산생물 시험연구 과정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서 충남해양과학고 학생들은 ▲충남지역 특산 어종 종묘 생산과 자원 조성 ▲양식기술

개발 ▲슈퍼 황복 등 고부가가치 가능성 어종 개발 등 주요 시험·연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학생들은 슈퍼 황복이 자라고 있는 연구소 내 종묘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도 수산연구소 연구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보령 미산중학교 전교생 42명, 7월에는 관동초등학교 학생 29명, 8월에는 공주대학교 생물교육과 학생 21명 등

내포=이지용기자



아산소방서, 벌초시 말벌·뱀 주의 당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산에 오르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벌초나성묘를 위해 산에 오를 경우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당부에 나섰다.



서산소방서장 화재 현장 지휘 대형화재 막아 서산소방서장(김경희)이 화재 현장을 출동해 화재진화를 직접 지휘해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소문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 김 서장은 화재발생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 직접 지휘해 빠른 시간에 불길을 잡아 대형화재를 막았다는 것이다.



청양소방서, 산악사고 인명구조 훈련에 땀방울 청양소방서(서장 이광성)가 지난 9일 칠갑산 일원에서 구조대원의 역량강화와 등산객 안전사고를 대비한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논산소방서, 소방차길 터주기 동참합시다 논산소방서(서장 류봉희)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방차길 터주기"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공주시, 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 릴레이 캠페인 나서 10일 공주여자중학교 정문에서 공주경찰서장, 공주여자중학교장(임달순), 학교전담경찰관, 교사 등 20명이 참여하여 등교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학교폭력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가졌다.



대전충남지방무청 '행복더하기 봉사단' 나눔사랑 실천 대전·충남지방무청(청장 이상수) '행복더하기 봉사단' 은민족 교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아침粥'을 방문해 직원들이 매월 모은 성금으로 구매 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벌초 예초기사고 75% 작업자 부주의·운전 미숙

농촌진흥청, 동력예취기 올바른 사용법 제시... 안전사고 예방 각별한 주의 당부

농촌진흥청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위한 예취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동력예취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의 당부했다.

2011년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예취기 100대당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0.16건으로 경운기, 트랙터 다음으로 사고가 많았다.

사고 유형은 예취기 칼날이 들 등에 부딪히면서 다치는 경우가 58%로 가장 많았고, 원인으로서는 작업자 부주의가 50%, 운전 미숙과 안전장비 미착용이 25%로 인적 요인 비율이 높았다.

예취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하며, 지나치게 흔들리거나 소음이 발생한다면 시동을 끄고 칼날이 잘 맞는지 확인한다. 작업 중에 흙이 칼날에 걸린 경우에는 반드시 시동을 끈 뒤 없애고 작업하도록 한다.

대덕구, 200리 로하스길

가족생태학교 운영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은 이날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계족산 황토길과 동촌당 생애길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200리 로하스길 가족생태학교'를 운영한다.

200리 로하스길 가족생태학교'는 천혜의 자연과 천년의 역사를 가진 대덕구를 잇는 200리 로하스길을 생태해설사와 동행하여 소중한 우리 지역의 생태와 역사·문화를 새롭게 보고, 듣고,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일정은 9월 12일 계족산 황토길, 9월 19일 동촌당 생애길, 10월 17일 계족산 황토길, 10월 24일 동촌당 생애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구직자 80% '면접관 태도가 입사 결정 영향 미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상반기에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구직자 247명을 대상으로 '내가 만난 최악의 면접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8명에 달하는 85.9%가 면접관의 태도가 입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구직자들은 '면접관의 태도가 입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38.5%) ▲그렇다(47.4%) ▲보통이다(12.1%) ▲아니다(2.0%) ▲전혀 아니다(0.0%)라고 답했다.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총 85.9%인 데 반해,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은 총 2.0%에 불과했다.

이어서 이번 상반기 채용 중 끝났거나 진행 중인 면접관(31.9%), ▲지원자의 스펙, 경험, 학력을 무시하는 면접관(28.7%)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꼴불견 면접관 유형은 ▲연애, 부모님 직업 등 면접과 상관없는 것을 묻는 면접관(40.7%)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사건건 시비 걸듯 압박하는 면접관(37.0%), ▲면접장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처음 보는 면접관(31.9%), ▲지원자의 스펙, 경험, 학력을 무시하는 면접관(28.7%) 순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좋은 면접관을 만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좋은 면접관을 만났나?'(복수응답) 물었다.

1위는 ▲면접 내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면접관(72.0%)이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연봉, 복지, 담당 직무 등 회사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잘 알려주는 면접관(51.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고 질문하는 면접관(33.5%)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아산소방서, 노후 가압식 소화기 수거 안내·홍보

노후 가압식 소화기 폭발사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고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를 통해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연중 노후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그동안 소화기를 단순 수거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수거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및 마을이장단 활용 노후소화기 일제 수거 ▲각종 소방안전교육 시 노후소화기 교육·홍보 ▲가압식 소화기 식별법 및 위험성 교육 후 마을별 일제 수거 ▲하반기 집중수거기간 운영 등 노후소화기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는 노후 가압식 소화기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후 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 연중 운영 및 노후 가압식 소화기 수거 안내·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압식 소화기란 1999년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내부에 별도의 기압가스 용기가 들어있는 구조로 축압식 소화기와 달리 압력 계이지가 없으며, 노후 되었을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지하지

충남경찰, 찾아가는 아동 성범죄 예방 인형극 공연

고재권 홍보계장 "어린이 눈높이 맞춤형 홍보활동 펼치겠다"

내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 100명 대상

충남경찰청(청장 김양재)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주진관)과 공동으로 10일 유치원생 1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성범죄 예방 인형극(내용은 소꿉놀이)을 공연했다.

이번 공연은 흥성군 흥북면에 위치한 내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흥성경찰서 전민재 경찰장의 범죄예방교육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지난 5월 내포유치원에 이어 두 번째 공연이다.

인형극을 마치고 포돌이·포순이 인형(탈)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와 충남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제작한 '포돌이 투명우산'을 현장에서 나눠줘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 충남경찰청과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1사 1모역 가꾸기 결연 협약식 국립대전충원(원장 권용정)은 10일 오후 3시,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주)세이메스(대표이사 권민용)와 한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이태희)과 1사 1모역 가꾸기협약을 체결했다.

안전한 우리동네 시장만들기 주력

금산소방서, 금산읍시장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10일 금산읍시장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래시장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출동 화재진압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실시한 훈련은 화재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합동소방훈련의 일환으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해 시장상인 등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 안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지위소방대원의 소화전 및 소화기 등을 이용한 화재 진압과 시장상인의 인명대피 훈련, 중요물품 반출훈련 등 지위소방대원 훈련과 소방차

또한, 훈련 후 시장 관계자 및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과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과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훈련을 주관한 조영학 서장은 "재래시장은 점포가 밀집되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활동 및 대처 능력 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쑈, 아간순찰 동참·현장 간담회 통한 학교폭력 예방의견 수렴

관내 중·고등학생과 치안올레길 순찰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인화기를 맞아 학교폭력예방 및 4대 사회와 근절 홍보를 위해 관내 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사,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진 문예의 전당을 출발해 원통촌, 당진초등학교 주변 아간 순찰을 실시했다.

역 등을 순찰노선으로 지정,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경찰과 함께 아간 순찰을 도는 활동을 말한다.

'치안 올레길' 순찰은 학교인근 청소년 비행우려지역, 원불 밀집지

당진=최근수기자

주민친화 프로젝트의 일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백제문화제 준비에 참여 '구슬땀'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영갑)는 주민친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백제문화제 준비에 여념이 없는 공주시 관광동 행정복지회의 요청을 받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투입, 백제문화제 행렬 소품으로 활용예정인 왕대나무 벌목, 가공 및 운반 작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주보호관찰소에서는 연중 '농

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통하여 농촌일손 부족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지역 사회 환경정비, 소외계층 지원, 농어촌 지원,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백제문화제 준비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박○○씨는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일인지 모르지, 큰 행사에 나의 작은 노력이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나를 뿌듯하다"며 참여소감을 표했다.

공주보호관찰소 김영갑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환경정비, 소외계층 지원, 농어촌 지원,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보호관찰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대학 4학년 42% “졸업 연기할 것”

<잡코리아> 졸업시기 결정 기준 ‘취업에 유리할 것인가’ 인 것으로 드러나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시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취업에 유리할 것인가’ 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4학년 대학생의 약 42%는 졸업시기를 늦춰 졸업유예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이 최근 대학생 548명을 대상으로 졸업시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알바몬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대학생 중 약 35%는 ‘졸업시기를 늦

춰 졸업을 연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59%는 ‘졸업시기 조정 없이 정상 졸업’을, 6%는 ‘조기졸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졸업시기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학년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정상졸업’을 선택한 응답군은 2학년이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조기졸업’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은 응답군은 1학년으로 그 비중이 약 27%에 달했다. 이는 4학년 학생의 응답 비중보다 무려 23%p가 높은 수치였다. 4학년의 경우 ‘정상졸업’이 544%로 나타난 가운데

‘졸업연기’를 선택한 응답이 무려 415%에 달하며 졸업 유예에 대한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졸업시기를 언제로 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취업’이었다. 즉 졸업시기를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334%가 ‘취업에 더 유리할 것 같아서’를 꼽았다. 이어 2위는 ‘학비 등 경제적인 이유(20.6%)’를, 3위는 ‘진로 탐색 등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갖기 위해(11.3%)’를 각각 꼽았다.

계획 중인 졸업시기 별로 고려 기준을

살펴보면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즉 정상졸업을 선택한 응답군은 ‘취업에 더 유리할 것 같아서(30.9%)’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학비 문제 등 경제적인 이유(27.2%)’가 2위에 꼽혔다. 졸업유예를 선택한 응답군 역시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가 389%로 1위를 차지했지만, 2위는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기 위해(15.8%)’를 꼽아 차이를 보였다. 반면 조기졸업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35.3%)’를 가장 큰 고려사항으로 보았으며, ‘취업(26.5%)’은 그 다음이었다.

이정복기자

신규 교원 대상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 연수

세종시교육청, 타 시도와 차별화된 스마트 스쿨 기반으로 이루어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19일까지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세종시 관내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한다.

타 시도와 차별화된 스마트 스쿨을 기반으로 세종시의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교육에 대한 초임 교원들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다.

올해 임명된 초등 156명, 중등 157명 모두 313명의 신규 교원이 대상이다. 연수

는 ▲스마트교육의 개념과 정보윤리 ▲스마트교육 해외사례 탐색 ▲교과별 스마트교육 적용사례 ▲스마트 App 100% 활용하기 등 스마트교육 교실수업사례 전문가를 통해 스마트 교수·학습 능력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된다. 또한, 연수는 그간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지양, 수업에 앞서 교수가 제공한 영상 등의 강연 자료를 미리 학습하고 강의실에서 토론이나 과제풀이를 진행하는 형태의 ‘플립러닝’ 방식을 취한다.

세종=이정복기자



당진 원당중학교, 수요일마다 축제 실시

당진 원당중학교(교장 우진용)는 지난 9일 점심시간에 2학기를 맞이해 첫 번째 수요일마다 축제를 실시했다.

학생 사회자인 김진하 학생의 진행으로 시작된 수요일마다에는 졸업생인 김민규(호서고) 선배의 통기타 공연을 비롯해 댄스, 노래, 오페라나 연주 등 그동안 같고

뒀은 끼와 재능을 한껏 발휘하면서 분위기를 무르익였다.

수요일마다 축제는 학생회 자치활동과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한 학교장 운영 중점이 접목되어 추진됐다.

당진=최근수기자

호국의 별과 함께하는 ‘2015 별 축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제 13회 학생천체관측대회 · 학생천체사진촬영대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원장 정용하)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하며 국립대전현충원이 후원하는 『2015년 별축제』를 9월 14일(월) 오후 3시 국립대전현충원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체사진전시, 학생천체관측대회, 학생천체사진촬영대회, 별자리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우주의 신비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천체관측의 대중화와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과학축제의 흥을 북돋운다.

이후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제13회 학생천체관측대회는 현충관 강당과 현충문

앞 광장 일대에서 실시되며, 대전광역시 초·중·고 학교에서 학생 4명과 지도교사 1명이 팀을 이루어 참가하여 천문 지식과 및 천체관측 능력을 겨루게 된다.

별축제 행사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는 천체사진 전시는 학생천체사진촬영대회 역대 수상작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합찬한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천체 사진을 전시하며, 별자리 강연을 통해 가을 하늘을 수놓은 별자리의 기원과 신화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현충관 앞에서는 자율관측을 진행하여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을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김정환기자

청양교육지원청, 2학기 맞아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학교폭력 근절 ‘공동의식’ 분위기 확산 앞장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자)은 2학기 신학기기를 맞이하여 10일 청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청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청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청양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회 임원, 청양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이 참석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을 배포하며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과 학교폭력 제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김은자 교육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생보호와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등 ‘공동의식’ 분위기 확산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과 같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양=정성범기자



태안고, 영상으로 역사 배우고 실천해

태안고등학교(윤종오 교장)는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인식고취의 일환으로 2015학년도 교내 역사UCC경연대회’를 운영했다.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이번 대회에서 심사결과 금상은 함수현(2학년)의 4명, 은상은 정예진(1학년)의 4명, 동상은 김정연(1학년)의 4명이 공동수상했다. 태

안고 역사동아리 TRY와 역사역사UCC 동아리의 활약이 돋보인 대회였다.

대회 결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주제로 영상을 담은 금상과 태안향교를 주제로 영상을 담은 은상 작품은 강원대 주관 전국 중고등학교 역사UCC경연대회에 출품됐다. 태안=김정환기자



제11회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수상 쾌거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제11회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에서 2개 종목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9일 양일간 대게이 서울호텔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장애인복지재단, 넷마블게임즈(주)가 공동주최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학생 정보축제로서, 지난 7월 충남 예선대회에서 최

종 선발한 5개 종목 18명이 참가했다.

e스포츠대회에 참가한 5개 종목 중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참가한 ‘다함께 붕붕붕’ 종목에서 보령 대관초 김수정학생팀(지도교사 이은서)과 장애학생·일반학생이 참가한 ‘팡야’ 종목에서 청양 가남초 유상민·조용환 학생팀(지도교사 김병직)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내포=이지웅기자

아산교육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 연수 실시

공·사립 유치원 정보공시 담당자 54명 대상

아산교육지원청(현재구 교육장)은 10일, 아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사립 유치원 정보공시 담당자 54명을 대상으로 10월에 실시되는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수시2종, 정시11종)에 대한 지침 안내 및 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정보공시 입력 사항 중요류 발생 빈도가 높은 항목과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우선 진행되었으며, 업무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겪는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사례

와 함께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번 교육을 받은 유치원 정보공시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돌아가 10월 8일까지 정보공시 입력사항에 대하여 입력하고 결과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게 되며, 교육청과 교육부(KERIS)의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금) ‘유치원 알리미 시스템(e-childschoolinfo.mest.go.kr)’을 통하여 정보공시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구 교육장은 “유치원 정보공시자료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담당자들은 공시자료 입력 및 검증작업을 철저히 하여 대국민 서비스로 높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금산교육 Wee센터, 지역유관기관 업무협약의회

금산군정신건강증진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일신경정신과의원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중대) Wee센터는 10일 지역유관기관인 금산군정신건강증진센터, 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금산군제일신경정신과의원과의 업무협약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15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2차 심층평가 결과에 따른 관심군 대상 사후관리에 대해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

원방안을 수립하고, 관심군 대상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및 정보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손중대 교육장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더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며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산=김남규기자

농식품부 · aT, 농식품 수출 성공사례 확산 세미나 개최

“농식품 수출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 수출 성공사례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환변동, 세계 경제둔화, 비관세장벽 확대 등 최근 국내·외 어려운 농식품 수출여건 하에서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수출업체, 정부, 대학생 등이 참석해 농식품 수출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공사례 발표업체는 머쉬엄(버섯), NH무역(신선농산물), 코메개생들(계기름), 삼진글로벌(종합식품), 퓨어플러스

(음료류) 5개사로 수출품목 발굴 및 품질 향상, 신시장 개척, 수출 단계 개선 등 핵심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 노하우를 설명했다.

유종식 aT 식수수출이사는 “올해 7월까지 농식품 수출은 39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으며,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 시장 수출이 부진한 상황으로 농식품 무역적자를 극복하고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업체의 의욕 고취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행사가 타 업체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지 점검하고 어려운 수출여건을 이겨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정 •

중촌종합복지센터 개관식



임상전 세종시의회의장은 11일 오후 2시 중촌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중촌종합복지센터 개관식 참석.

홍주천년 전통음식 경연대회



김석환 홍성군수는 11일 오전 11시 역사인물축제장에서 열리는 홍주천년 전통음식 경연대회 참석.

예산군의회의 임시회 폐회



황선봉 예산군수는 11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15회 예산군의회의 임시회 폐회 참석, 오후 3시 도청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정부 3.0 충남지역 성과보고대회 참석.

세종시 국비 3000억 원 '돌파'

내년도 일반국고보조 1887억 · 지특회계 1167억 반영

세종시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올해보다 528억원 증가한 3064억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10일 이준희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일반국고보조금 1887억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167억원 반영돼 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현안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특회계 세종시계정이 세

중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국고보조금 3천억원대 최초 돌파는 균형발전 및 생활인프라 확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확보된 세종시계정의 주요 사업으로는, 유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촉진 보조금이 188억원으로 올해보다 108억원 증가하였고, 하수관로 정비예산이 179억원으로 올해보다 69억원이 늘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올해보다 28억원이 증가했으며, 미래·첨단산업 공업용수도 사업비도 50억원(올해 8억원)을 확보했고 읍면지역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충 사업비가 105억원으로 올해보다 32억원이 증가했다.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사업으로 내장천(조치원읍) 3억원, 대교천(장군면) 3억5천만원, 덕현천(천의면) 2억5천만원의 설계비를 각각 확보

했으며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51억원, 금강스포츠파크 조성 11억원 등 신규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세종시는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적극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세종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김정형기자



‘미래 에너지’ 수소차 10월 내포에 선보인다

충남도, 17대 인수도 공무원 출장등 관용업무에 활용

충남 내포신도시에 내달부터 수소자동차가 선보일 예정이다. 충남도는 공무원의 출장 업무에 활용할 관용 수소연료전지자동차 17대를 이달 10일과 21일에 걸쳐 인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남도의 관용 수소차 도입은 광주광역시에 이어 2번째이다. 도입대수는 17대이며 상징적 의미의 도입이 아닌 실용적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를 이용, 전기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성하고 모터를 구동시켜 운행되며,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자동차로 알려졌다. 또한, 1회 충전 시 500~600km를 주행할 수 있어 연비도 높다. 최근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발표에 따라 대당 150만 원 절감 혜택을 받아 대당 8043만 원에 구입했다.

이벤트에 도입되는 17대의 수소차에는 9월 준공되는 내포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내포 수소충전소 준공식 행사를 다음달 1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수소차는 아직까지 높은 가격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연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관용 수소차 도입에 따른 외부효과가 클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본이 국가적 로드맵을 확정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우리 정부, 지자체, 관련기업도 적극적인 대응마련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번 관용 수소차 도입으로 수소차에 타 사업 유치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인수에 앞서 지난 7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배치받아 운전하게 될 공무원 173명을 대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따라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내포=이지용기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홍성군, 오수 과다유입 등 하수처리장 운영 지장

홍성군은 최근 불법판매 및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적극 홍보,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계도하고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한 길거리 캠페인, 아파트 단지 홍보방송 및 전단지 배포하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누구나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음식물찌꺼기가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러한 제품이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정확히 확인해야 필요 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인구 10만 명 돌파... 평균연령 31.4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인구가 지난 9월 기준으로 10만 명을 돌파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인구가 8월 현재 10만 14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첫마을입주가 시작된 지난 2012년 말(1만 9,438명)과 비교해 2년 8개월 만에 415%가 증가한 것이다.

행복도시 인구현황은 ▲총종동 2만 2,670명 ▲도담동 2만 1,840명 ▲한솔동 2만 1,041명 ▲아름동 1만 8,403명 ▲어진동 5,195명 ▲고운동 1만 652명 ▲기타지역 343명이다. 이처럼 행복도시에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말까지 정부청사 이전이 마무리된

10월 세종축제 홍보 나선다

세종시,서울인사동서 '손글씨 나눔행사'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0월에 열리는 세종축제 알리기에 나섰다. 세종시는 세종축제 방문객 유치를 위해 10일 오후 서울시 인사동에서 축제 사전홍보행사로 손글씨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우리세종과 함께하는 손글씨 나눔행사’라는 주제로 손글씨 작가 2명이 시민들이 원하는 문구를 직접 작성해 나눠줬으며, 제3회 세종축제 로고가 새겨진 낙관을 써서 세종축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종시청사 종이모형 기념품을 제작해 배포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이번 홍보 행사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세종시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종시, 세종축제를 찾는 단 한명의 관광객에게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제3회 세종축제’는 세종대왕과 한글을 주제로 체험 전시 행사와 수상공연, K-pop스타들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세종=김정형기자

충남도, 축산인 한마음대회 10월 열려

사기 진작·새 정보공유의 장 마련

충남도는 오는 11월 천안시 풍계면 용정리 산업단지에서 농림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축산 농가와 축산 관련 단체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관련 단체의 사기 진작과 새로운 정보공유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좋은 가축 선별대회’와 ‘한마음대회’, ‘부대행사’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좋은 가축 선별대회는 한우와 젖소 등 7개 부문 75두가 출품돼 외모 심사를 통해 우수축을 선별한다. 또 도축 관계로 사전에 진행되는 고급육 경진대회에는 2개 부문 30두가 출품돼 고기 등급에 따라 우수축을 가린다.

수상은 각 부문별로 최우수 1점, 우수 1점, 장려 1점 등 좋은 가축선발대회 21점, 고급육 경진대회 6점, 우수 시·군 및 축종 12점 등 모두 39점이 받게 된다. 한마음대회에서는 축산인들의 단합을 위해 시·군 줄다리기와 단체 놀이가 진행된다. 또 부대행사에서는 각종 축산기자재 업체 50여 곳이 참여해 우수기자재를 전시하고, 우유 빨리 마시기 대회와 축산물 시식회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명수 도 축산과장은 “이번 축산인 한마음 대회는 도내 축산인들이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다짐하고, 화합과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축산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내포=이지용기자

추석 귀성객 맞을 준비 ‘활발’

예산군, 다중이용시설·터널 등 24개소 특별 안전점검

예산군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많은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이미지 제공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비롯, 교량과 육교, 터널 등 24개소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과 예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충부지사, 충남도청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의 손상·균열, 누수 등 결합발생 여부 ▲전기안전인 화재발생 가능성 점검 ▲가스설비 및 배관의 가스누출 여부 ▲소화기 및 소방 설비 관리상태 등이다.

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법적기준에 미달되는 중요사항 등이 발견되면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1일부터 모여 주변에 초작업을 시작한 추모공원은 성묘객들이 경건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조상을 기릴 수 있도록 오는 23일까지 묘역 단장과 조경수 진지작업, 추모공원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에는 성묘객

들을 위해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며 추석 당일에는 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차량 통제 유도에 나서 성묘객이 추모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7월부터 오는 21일까지 마을상수도과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명절 기간 동안 원활한 급수와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이번 점검에는 마을상수도 116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8개소 등에 대한 ▲물탱크 내부 청결여부 ▲안전시설 점검 ▲소독장치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자에게 통보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황선봉 군수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이 옛 정취와 함께 낯익은 풍경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금액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세종=이정복기자

세종=이정복기자

우리/동네



당진시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지능형 방범용 CCTV 68대 설치 '범인 꿈짜마'

당진시가 시민안전증구축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범죄취약 지역에 지능형 방범용 CCTV 68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CCTV는시는 현장실사와 함께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우선대상지를 선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11개소, 범죄취약 지역 13개소 총 24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지능형 CCTV는 동영상 화면만 녹화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감식하기 힘든 차량 번호까지 자동으로 인식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차량사고 발생시 목적자의 도출 없이도 운전자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CCTV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중 자동차로 사물이나 사람의 특징적인 개체를 인식할 수 있어 범죄자의 용모 및 범죄행위 식별을 통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에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230만 화소의 고해상도로 설치해 야간에도 정확하게 사물분석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CCTV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규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설치된 CCTV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도시공원에 대해 85%설치를 완료했으며 오는 17년까지 100% 설치를 완료해 안전한 사회 건설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추석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청양군,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25개소 대상

청양군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단속기관의 휴무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를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폐수다량 배출업체시설 ▲설 성수품 제조업체 ▲유독물 사용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또 관내 지천, 인화담천 무한천, 치성천 등 오염 우려 하천과 금강본류 및 상수원 상류 등에 걸쳐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에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신고 접수창구(국번 없이 129)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는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취약한 영세업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해 기술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오염물질 무단투기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시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귀농·귀촌인 어울마당 축제' 열려

당진시, 화합과 성공적인 귀농·귀촌 위해 마련

당진시가 '희망이 있는 귀농, 꿈이 있는 당진'이란 주제로 지난 10일 석문면 당진화력본부 석문과 주민공원에서 '당진시 귀농·귀촌인 어울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이번행사는 귀농인들과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마련됐으며 선배 귀농인인 조이성씨가 농촌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농정책 사례발표의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하나가 되어 어울릴 수 있도록 풍물놀이, 합창, 오키나리아연주, 우쿨렐라 연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유재석 회장은 이날"이번 어울마당은 당진을 제2의 인성터전으로 새로운 인성을 설계하고 있는 귀농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라며 "당진만의 문화를 공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 귀농·귀촌인협회는 당진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이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영농기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단체다.

당진=최근수기자

내년도 군민 위한 창조적 군정 실현 총력

태안군, 10일 군청 중회의실서 '2016 업무구상보고회' 열려... 행정력 집중

태안군이 민선6기의 정점에 이르는 2016년을 맞아 창조적 군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군민 곁에서 군민을 위하는' 생활민중형 위민 행정을 핵심적 가치로 삼아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한상기 군수를 비롯, 김정호 부군수와 각 심·과·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군청 전문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업무구상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내년도 민선6기 3년치를 맞이하는 한 군수의 공약사항 중간점검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

한 것으로, 각 부서별 소통과 공유 등 협력체계 강화와 이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행정지원분야 ▲문화복지분야 ▲환경분야 ▲산업경제분야 ▲건설해양분야 등 군민 체감 업무 관련성이 높은 5개 분야를 지정, 직제순 보고를 벗어나 업무분야에 따른 보고를 실시해 집중도를 높였다.

보고회에 따르면, 군은 내년도 ▲태안인식서비스 시퀀스 시행 ▲업 앤드 다운(Up & Down) 인사제도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안항 마리나항만 개발 ▲태안 생활화

구상 신설 ▲시정경기 활성화 위한 다문화거리 조성 등 조직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생활민중형 신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골드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력 보강 ▲선제적 행정정보공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세무서비스 제공 ▲안면도관광지 개발 조사업무분야에 따른 보고를 실시해 집중도를 높였다.

보였다.

한상기 군수는 "민선6기 3년차인 내년은 76건에 이르는 공약사항의 적극적 추진 등 본격적인 성과 창출의 해로 나아가야 할 시기로, 군을 둘러싼 대외 여건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군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늘 업무구상보고회를 계기로 군의 미래비전을 발굴하고구체화해 모든 공직자가 지역의 발전을 주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농기센터 청렴·개인정보 교육·업무구상 보고회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지난 9일 3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청렴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과 2016년 청양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업무구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원들은 청렴교육을 통해 그동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하고 청렴하게 처리했는지 자기성찰을 해보고 진정한 자기주도적 청렴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를 가졌다.

또 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조직의 청렴활동 실행과 개인의 반부패 활동을 위한 구체적 제언과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직무상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해설 등 청렴한 공직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됐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통해서도 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무심코 유출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주지시켰다. 이어 내년도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구상 보

고회를 개최해 새로운 사업 발굴과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농촌 활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한편,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영농현장에 시기별로 적합한 지도 사례 중심으로 농업인이 필요한 기술정보를 빠르고 널리 알려 농업인이 만족하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온양3동-아산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아산시 온양3동(동장 전병관)은 화재로 인한 긴급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 9일 아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직원과 민원인 등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유사 시 상황 단계별 임무절차를 숙달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능력을 배양해 대처능력을 발휘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훈련 상황은 청사 내 인원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메시지 훈련으로 시뮬레이션 최초 목격자에 의한 화재신고와 안내방송을 통한 인명대피, 온양3동 자위소방대의 초기 진화, 아산소방서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소방훈련 종료 후에는 주민센터 4층 헬스장에서 갑작스럽게 심장이 정지한 환자를 소생시키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병관 동장은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져 민원 시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아산소방서에 의뢰했다"며 "진지하게 훈련에 참여해 주신 직원과 주민 여러분, 아산소방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훈련이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학교급식 친환경 농·수·축산물 공급 확대

'학교급식지원 급식관리자 정책방향 설명회' 열려

태안군이 친환경 식재료 지원을 통한 학교급식 질 향상과 지역민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태안군은 지난 9일 군 문화예술센터 소강당에서 한상기 군수를 비롯, 군·충남도 관계자와 영양사, 학교 관계자, 학부모, 식재료 납품업체, 농가 등 급식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지원

급식관리자 정책방향 설명회'를 열고 올바른 급식지원을 위한 방향 정립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는 학교급식과 관련, 충남도의 정책방향과 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조율해 급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급식 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남도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

식센터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군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가격, 생산, 교육 등 4개 분과위원회 실무회의를 매월 개최기로 하는 한편, 이를 통해 품목별 가격을 결정하고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해 학교급식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날 설명회에서 논의된 학교급식센터 정책방향 및 운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지체 없이 현장에 맞는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한상기 군수는 "군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 지원을 통해 급식 질 향상과 지역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동정

사회적경제 국제 공동 포럼



복기왕 아산시장=11일 오후 2시 순천향대학교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 국제 공동 포럼에 참석

정부3.0 성과보고대회



김홍상 당진시장=11일 오후 3시 충남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정부3.0 성과보고대회에 참석

청년회의소 기념식



한상기 태안군수=11일 오후 5시 태안을 센트럴웨딩홀에서 열리는 태안청년회의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

정부3.0 성과 보고대회



이석화 청양군수=11일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9월 이장상임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한 후, 오후 3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충남지역 정부3.0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

맞춤형 학부모 연수



심재진 당진교육장=11일 오전 10시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2015 제2차 맞춤형 학부모 연수에 참석

찾아기는 예방감사 연수



김은자 청양교육장=11일 오전 7시 30분 합천초등학교 통학차량 현장 실태점검. 오후 1시 30분에 청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찾아기는 예방감사연수 참석

아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아산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아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34%(80억)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 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안정화를 위해 실시된다.

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으면 차량번호명령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입찰주 과징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시 재정이 확충되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 없이 그대로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리량주기자

개학 맞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나서

청양군 장평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하고자 마련

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은 관내 초·중교 개학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학교 통학로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일제정비에 나섰다

이번 일제정비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위해 정서파괴 유해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노후간판 및 음란·퇴폐성 광고물 등에 대한 정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장평면 관계자는 면민의 안전을

위험하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일제정비를 위한 계도활동을 통해 이렇듯은 장평 면민들에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장평면은 학교주변 뿐만 아니라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도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부착된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에 대한 지진 철저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042)538-3030

우/리/동/네

계룡시 추석맞이 특별종합대책 추진

교통·물가·건강·생활민원 등 7개 분야별 계획 수립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5일까지를 추석맞이 종합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비상진료·위생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 사전사고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물가관리와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통해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재해·재난·안전사고 대책을 위해 이중이용 시설, 주요사업장 등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소방서와 함께 화재 등 각종 사고 시 가용 소방력 초기 집중투입 등 화재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명절이던 치솟는 장비구리 물가와 성수품의 지역특산물 둔갑판매 예방을 위해 추석 성수품 취급 대형마트, 도소매업소·축산물·수산물 취급 등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매점매석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귀성객들이 편안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교통안전 대책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에서는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등 비상의료체계를 구축,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며 각 면·동사무소에서는 지역 유관기관과 봉사단체와 협력,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홍묵 시장은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중 시민과 가족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각 분야별 철저한 대비를 통한 사전·사과 예방으로 안전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65 안전한 부여 만들기

다수 사상자 발생대비 재난구급 대응훈련 실시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9일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에서 부여군, 부여소방서, 부여경찰서, 한국조폐공사, 의용소방대 등 1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수 사상자 발생대비 재난구급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유관기관별 역할분담과 현장지휘능력 배양,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으며, 부여군과 부여소방서주관으로 10개 유관기관 190여명과 장비 18대가 동원됐다.

특히, 응급의료소 설치부터 병원이송까지 일련의 구급대응과정에서 필요한 ▲사상자 현황 파악 및 보고 ▲선착 구급대원에 의한 환자의 중증도 분류 시행 ▲사고유형별 환자증상 및 정확한 응급처치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적절한 입부 수행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을 통해 극한 재난에 대비한 유관기관간의 재난대응역량을 배양하여 365 안전한 부여'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여=이정복기자

정기분 재산세 25억원 부과

계룡시, 6월 1일 기준 소유자... 이달 말까지 납부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 하반기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물분) 1만 2000건에 2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1/2과 건물분은 지난 7월에 부과됐으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매년 9월에 부과된다.

납부 편의 시책으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www.wetax.go.kr),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시세)로 지역발전에 투자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93)로 문의하면 된다.

LG생활건강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

천안시,산단 진입도로 국가지원사업 선정·실시설계비 국비 6억원 확보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40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LG생활건강 퓨쳐일 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건설공사

가 2016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천안시는 LG생활건강 퓨쳐일 반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국가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산단 북측 용평사거리 중로 1-23호선에서 지방도 629호선(서천안 IC 예정지)을 동서로 연결하는 연장 1.4Km, 폭 20m로 개설하게 된다.

최근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으로 진입도로 지원 기준이 강화되던 대상 및 규모 축소됨에 따라 사업대상지 선정에 어

려움이 많았으나,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구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총망와 천안시의 적극적인 노력,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

특히 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 215억원을 국가지원 사업으로 요청하여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타당성조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

한편, LG생활건강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화장품사업의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 2016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수를 착수하여, 2018년



공장가동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양기주 기업지원과장은 "2016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

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추가 확보, 2018년말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산업활동과 접근성 향상에 따른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는 물론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동남구의 도시발전 가속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 퓨쳐일 반산업단지 는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40번지 일원 39만5718㎡에 산업시설, R&D센터, 인체개발센터, 홍보체험동 건립, 원료재배용 온실운영 등 친환경적 '뷰티테마파크(Beauty Theme Park)'를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김정환기자

"논산시 여성대회 화합 다졌다"

제26회 논산시여성대회·어울림문화공연 개최 '성료'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제20회 여성주간을 기념해 10일 오후 2시부터 국민체육센터에서 제26회 논산시 여성대회 및 어울림문화공연을 개최하고 화합을 다졌다.

이날 대회는 논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여성단체회원, 다문화가족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행, 양성평등의 첫걸음입니다-여(女)보 함께 걸어요'를 주제로 열렸다.

1부 기념식은 색소폰 공연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선언, 모범여성 표창 및 모범가정 격려와 대회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2부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방송인 이다도시가 특강을 하여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찾는 귀한 시간이 마련됐다.

3부 어울림문화공연에서는 우리고장 출신 김세레나의 갑돌이와 갑순이, 새타령 등 민요와 화합의 추억의 포크댄스 등으로 이어지면서 행사장 분위기는 절정을 이뤘다.

한순이 논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대회사로 "올해는 양성평등한 문화축선을 위해 노력한지 20년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재탄생한 해로 오늘 행사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넉넉한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친목과 우대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성들의 의식개량과 능력개발에 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여성단체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라며 여성이 사회의 주인이 되 논산 발전에 이바

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강경명 정인지의 14명이 모범여성, 구정옥희의 2명이 모범여성리더로 선정되어 시상 표창을 받았으며 모범가정 3가구를 위한 격려 자리를 마련해 훈훈함을 더했다.

또 행사장 입구 로비에서는 보건소,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논산YWCA 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해 인바디 측정, 혈압 및 당측정, 새로 일하기센터 사업안내 및 가정폭력 예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홍보 등 여성 희망 일거리를 찾아서 전시코너가 열려 호응을 얻었다.

논산=한대수기자

부여군 재해예방 정비사업 '탄력'

국비 14억1500만원 확보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도로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국비 14억1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특히 이용우 군수는 직접 각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펼쳐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추진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역은 양화면 암수

리 금강 도로변과 충화면 천당리 청소수련원 진입도로로 매년 강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토사가 유실되고 낙석이 발생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었다.

이에 군은 올해 금강사지 관리지역 중 해방미 안전진단을 통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지반이 약해 응급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펼쳐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추진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역은 양화면 암수



도복 총력을 더해 달라"며, "아직도 산재해 있는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적

극적으로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논산시, 집중단속기간 정하고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실시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8일 반월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반월초교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개학기를 맞아 스쿨존 내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및 과속·신호위반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병행했다.

시는 3일부터 18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와 안전띠 미착용,보호자 미탑승 등 운영자 의무사항위반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통학차량 특별보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단속으로

제도 정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스쿨존 내 제한속도 및 신호 준수,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준수와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논산=한대수기자

천안서 아열대작물 패션푸르트 재배 성공

임장면 지역 8농가 첫 재배시도...전랑계약업체 판매 계획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할 대체작물이자 신소득작목으로 올해 천안에서 처음 재배된 아열대 과일 패션푸르트(백향과)가 재배에 성공하여 본격 수확되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임장면 김병기 대표를 중심으로 8명의 농가가 지난 3월 패션푸르트를 처음 정식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재배에 성공하여 이제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3.4ha에서 비닐하우스와 노지재배 두가지 형태로 재배되고 있으며 한그루당 100~150개의 수확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확된 열매는 계약

업체를 통해 전량 판매하기로 했다.

백향과라고도 불리는 패션푸르트는 100가지의 향과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석류보다 비타민C가 3배 이상, 노화방지에 효능이 있는 니아신도 5배 이상 함유하고 있어 '여신의 과일'이라 불린다.

또한 항산화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과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회복,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패션푸르트를 포함한 천안지역에 맞는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아열대작물에 대한 검증과 시험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특산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등 정

한미음대회



구분영 천안시장= 11일 오전 10시 풍세 산업단지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축산인 한미음 대회에 참석하고, 저녁 7시 신방동주민센터광장에서 열리는 신방동신청사 개청기념 주민 화합축제에 참석.

논산예술제



황명성 논산시장= 11일 홍성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격려, 오전 9시 시

장실에서 논산시 기독교 성금기탁 오전 10시 종합사회복지관 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되는 여성도의교실에 참석, 오후 1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제10회 논산예술제에 참석.

생활체육대회 개최식



최홍묵 계룡시장= 11일 오전 10시 홍성 홍주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충남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식 참석.

사회복지대회



노박래 서천군수= 11일 오전 11시 서천 특화시장에서 지역상권 애용 캠페인에 참석한 후, 오후 2시 서천문에

의전당에서 개최되는 제8회 서천군 사회복지대회에 참석.

세계유산 활용방안 대토론회



이용우 부여군수= 11일 오후 2시 부여 문화원 소강당에서 개최되는 세계 유산 활용방안 대토론회 참석.

임사회 개최식



김혜경 계룡시장 = 11일 오전 10시 계룡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계룡시의회 임사회 개최식'을 주재.

서천군에서 민관협력 우수사례 배워오

강원도 화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 및 희망 288 협의회 위원, 복지가카데미 수강생 등 40여명과 전남 여수시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지역 주민과 공무원 등 20여명이 민관협력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10일 서천군을 방문했다.

화천군과 여수시 벤치마킹팀은 서천군의 민관협력 우수사례 및 사방나누리 사업 발표를 듣고 서천 어머니터 복지마을 내 시설을 견학했다.

인근한 화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과 여복에 여수시 민관협력 시범사업 담당자는 "서천군에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시범사업 우수사례와 사방나누리 사업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타 시군에서 본받을 만하다"라고 벤치마킹 소감을 밝혔다.

화천군과 여수시는 서천군 민관협력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민관협력 시범사업 활성화 도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천=김태성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30 대동빌딩 1층

특정

귀산리 경로당 준공식



오시덕 공주시장은 11일 오전 8시 20분 상화실에서 열리는 전략회의에 참석, 오전 10시 30분 우성면 귀산리 2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오후 5시 부여군 백제문화단지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이사회 참석.

제6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김동일 보령시장은 11일 오전 11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제6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오후 2시 천북면사무소에서 열리는 중심지단위 주민참여 현장포럼 참석.

서산시의회 임사회 폐회식



이완섭 서산시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04회 서산시의회 임사회 폐회식에 참석, 오후 1시 30분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되는 서산 대산항 정책 세미나 참석.

인삼약초 관련 단체장 간담회



박철열 금산군수는 11일 오전 11시 상화실에서 열리는 인삼약초 관련 단체장 간담회 참석.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조병벽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11일 충남 일원에서 열리는 2015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석.

김동일 보령시장 특별강연 열기 후끈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협의회(회장 백경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도의교실 순회교육의 열기가 후끈하다.

여성 도의교실은 최근 사회가 급속히 변화되어 가면서 도덕과 윤리가 해이해 가정을 사회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 참 일꾼인 주부들에게 사회의 기본 단체인 가정의 소중함과 품격 있는 가정 만들기,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와의 광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혜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10일 대전3동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도교실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보령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소·친절·칭결' 운동과 충·효·예를 소재로 특별 강연을 했다.

김 시장은 특강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미소·친절·칭결 운동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로 생활 속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덕목과 가치 공유가 핵심으로 '도의교실'과는 일맥상통 한다"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공경하며, 내 집 앞은 내가 치우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윤리가 실종되고 도덕적 위기상황에서 도덕과 윤리의 산교육장인 가정에서 여성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성 도의교실은 지난달 13일 오전면을 시작으로 관내 16개 읍면동을 돌이 가며 열리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각 지회와 주민들 68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영예

서산시, 창의혁신·산업경제·문화관광 등 7개 평가 부문 경쟁력 인정받아

서산시(시장 이완섭)는 10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민간 경영기법 방식의 평가를 통해 경쟁력이 뛰어난 자치단체에 주는 상이다.

연구원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만족도조사, 심사위원 인터뷰 등의 절차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창의혁신,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7개 평가 부문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대상을 차지했다.

서산비아이·웰빙·연구특구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기업유치 목표 20개 중 30개 기업을 유치하였



으며, 올해에만 친환경 유망기업 21개(8월말)를 유치하여 일찌감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개항 이래 9번째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전국 6위의 물동량을 유치하는 등 서산 대산항을 환황해권 신 중심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특히, 공직혁신 운동으로 Smile, Simple, Soft, Smart, Speed 행정인 친절, 명료, 유연, 깔끔, 신속의 '5S 행정'과 임팩, 손품, 발품, 두품, 심품의 '5품행정'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시민중심의 '현장행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고용과 복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확장형 모델인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교황방안 이후 해미읍성을 환황해권 신 중심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국가브랜드 대상, 한국민속 예술축제 대통령상의 47개 분야에서 상을 수상하

여 총28억여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올해에만 친환경대상, 지자체 영상대전 대상, 국제관광박람회 최고 전시상 등 굵직한 상을 휩쓸어 지방자치 역량의 우수성을 높여 평가 받아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또한, 이완섭 서산시장은 올해에만 현재까지 개인상으로 SNS산업대상, 지방자치 CEO대상에 이어 창조경제대상,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이어 유원자 대상,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상 등을 수상하여 탁월한 행정력을 높여 평가 받았다.

이날 이완섭 시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발전엔 힘을 모아준 시민과 1천여 공직자 덕분에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올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해 뜨는 서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우리/동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보령시, 연납신청 등 지난 1기분 대비 6% 감소

보령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시설물 1744건에 1억 2704만원, 자동차 1만 6013대에 6억 4898만 원 등 모두 1만 7757건, 7억 7597만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569건, 5043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자동차의 경우 1분기에 연납 신청 시 10% 할인부과에 따른 연납신청 증가와 소규모소가 사업자 폐업 등의 사유로 지난 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기분 부과기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공해지등자, 유모5 경유차를 제외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유동,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바닥면적 160㎡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 소유자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 자동차의 신규 취득과 사용폐지, 시설물의 신축과 철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전·현 소유자에게 일괄 계산해 각각 부과된다.

또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간단납부' 방식을 통해 은행현금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o.or.kr)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 개정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2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지만 기존 미납액은 납부해야 한다"며 "제때에 대한 사항은 재산임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김태성기자

손님맞이 국토대청소 대대적 전개

공주시, 9월 한 달간 운영·22일 일제 대청소 실시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추석 연휴와 제61회 백제문화제를 맞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국토대청소 운동을 벌인다.

이에 따르면, 이번엔 실시하는 대청소는 생활주변을 비롯한 버스승강장, 하천, 각종 사업장 구석구석에 대한 청소를 실시, 추석과 백제문화제를 맞아 찾아오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9월 한 달간을 추석 및 백제문화제 대비 국토대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 단체,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직장가와 마을 등 생활 주변에 대해 대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신속한 쓰레기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손님맞이 태세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오후 2시부터 유관기관, 사회단체,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범시민 국토대청소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각 기관·단체별로 분담한 관내 지역을 순회하며 도로변에 버려진 담배꽂이,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다.

공주시 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 이봉상 팀장은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백제문화제를 찾는 손님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국토대청소 행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금산군 4-H본부, 어려운 이웃 돕기 150박스 기탁

저소득층 가구 전달 '훈훈'



금산군 4-H본부는 지난 9일 추석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쌀 150박스를 기탁했다.

금산군 4-H본부장은 윤호 회장 이취임식시 기탁한 쌀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기부했으며, 정용수 회장은 (쌀) 김 900박스를 기탁하는 등 4-H본부 지덕노예 이념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정용수 회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한명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금산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금산=김남규 기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받으세요"

공주시,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대상·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때 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월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이를 넘기면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도난이나 사고가 발생했

을 경우와 겨울철(12월~2월)에는 배출가스 검사의 유예가 가능하다.

공주시 환경자원과 환경지도팀 신창룡 팀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으로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감독이 가능해져 국민건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행복공주 실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추석맞이 제수용품 합동단속 강화

금산군, 4개반 9명 전문 단속반 구성 25일까지 실시

금산군은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에 앞두고 성수용품인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의 제조, 가공, 유통 부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재래시장, 축산물판매, 대형수퍼마켓, 일반음식점, 제수용품제조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등이고 단속기간은 9월 25일까지이며 위생관리실태 등이다.

단속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축산물 냉장보관상태, 제

조식품의 유통기한 경과여부, 일반음식점의 위생실태,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및 종업원 건강검진 실시여부, 축산물 가공업소의 도축검시증명서 등이다.

점검 확인을 통해 부정유통행위 등 사정 차단, 기본 좋은 명절나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반은 금산군 특시장경지원팀과, 군 위생팀, 축산팀이 충청남도 와 농산물관리지원팀의 지원을 받

아 4개반 9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4일에 걸쳐 일정별로 단속에 임한다.

또한 같은 시기인 9월 18일까지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는 학교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정화, 식품안전, 옥외광고물정비 등 학교주변위해요인을 사전 점검 차단, 안전위해요인을 근절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산=김남규 기자

제조업 기업인 애로 해소 적극 나선다

보령시, (주)디디다이아 방문·기업체 근로자와의 긴급회 가져

김동일 보령시장이 10일 보령시 성주면 소재 제조업체인 (주)디디다이아(대표 최명배)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제조업 종사자들과 소통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먼저 관리사무실에서 기업 일반현황을 청취하고, 공장 시찰을 통해 제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최 대표와 근로자 40여명과 사내 내부식당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디디다이아는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을 절단 가공하는 우수한 절삭력을 지닌 기술로 틈과 불꽃을 절삭하는 기업으로 일본의 반도체와 재해복구 프로젝트 개발로 유명한 (주)디디스코가 지분의 95%를 갖고 있는 특이한 이력도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다이하드 공구는 21세기 미래 산업의 초석이

되는 세계적인 품질의 공구로 이를 통해 생산되는 틈과 호환성 공구는 제조 산업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늘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로 기업의 갈등을 해소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디디다이아는 1995년 12월에 설립하고 직원 53명과 연매출 50억 원의 탄탄한 생산력으로 지난해 생산량중 수출이 96%에 달하는 등 수출 지향적 영업 전략을 갖춘 회사이다.

보령=김태성기자

2015년 논·벼 생산량조사

오는 15일부터, 보령·부여·서천 등 3개 시군 대상

충청지방통계청 보령사무소는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등 3개 시군에 대한 논·벼 생산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식량생산계획, 토지이용의 개선, 농업경영개선, 농산물가격안정, 유통대책 등의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마련됐으며, 논베가 재배된 면적표본 조사구를 총별

로 나열해 중앙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하며, 주 내용은 논·벼 당 포기수, 포기당 이삭수, 이삭 당 낱알수, 피해상황, 품종, 모내 방법, 10a당 예상수량 등이다.

또 수확기인 10월중에는 실수

확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6㎡ 당 조제비 중량, 8/1조제 비, 8/1 건조 비, 6㎡당 생벼질, 피해사황, 크기별중량, 수분함량 등을 조사하게 된다.

윤경진 보령사무소장은 "이번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 농가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조사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결과를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를 통해 11월 초에 공표할 예정이다.

서산=김정환기자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across different channel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Continues the list of TV programs from the previous table.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Continues the list of TV programs from the previous table.

TV: 하이라이트

▲어머님은 내머느리 (SBS오전8시30분)



상태는 빈번히 집에 찾아오는 경숙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경숙은 그런 상태가 패배하기만 하다. 한편, 양희정은 부주와 경숙에게 의심촌을 소개하는 상경례 자리를 마련한다. 상경례장으로 들어간 부주와 경숙은 현주와 상태와 마주치고 서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별이 빛나는 빛나리 (KBS2 오전9시)

생명을 구해준 인연으로 봉희와 미순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미순은 재균과의 옛일을 생각해 정래네 식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재균의 살인사건이 미...

케이블 영화

▲캐트우먼 (11일 CBN 오후 5시00분)

매사에 소심하고 소극적인 페이선스 윌립스 윌리 베리는 그런 성격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산다. 화가의 꿈도 포기하고 화장품 회사인 '헤데어 뷰티'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는 내심 늘 남들에게 당하고만 사는 자신이 못마땅하지만 하다. 페이선스가 다니는 '헤데어 뷰티'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위해선 어떤 희생도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진 악덕 사주 조지 헤데어(램버트 윌슨)가 운영하는 대기업. 슈퍼모델인 그의 아내 로렐(사론 스톨)은 회사의 간판모델로 몇 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모델로는 너무 늙었다며 22세의 젊은 모델로 교체하려 하자, 복수를 결심한다.

나름대로 평온하던 페이선스의 삶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운영적 변화를 맞게 된다. '헤데어'의 노화방지 화장품에 감춰진 무서운 비밀을 알게 된 것. 비밀이 누설될 것을 우려한 헤데어는 페이선스를 살해한다.

영화 '돌연변이' 제4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초청

13일 이광수·이천희·박보영 출국



이광수, 이천희, 박보영 주연의 신선한 캐스팅과 '생선인간'이라는 획기적인 소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돌연변이'가 제40회 토...

론토 국제영화제 공식 일정을 확정했다. '돌연변이' 주연배우 3인과 권오공 감독은 영화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공식 상영 및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에서 영화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태안초 6학년 김연지 꿈나무대회 배영 100m급·50m메달 획득 경향북도김천실내수영장에서 9월 5일~6일에 열린 '2015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수영 여자 초등부 부문에서 태안초등학교(교장 권중기) 6학년 김연지 학생이 배영 100m급, 50m메달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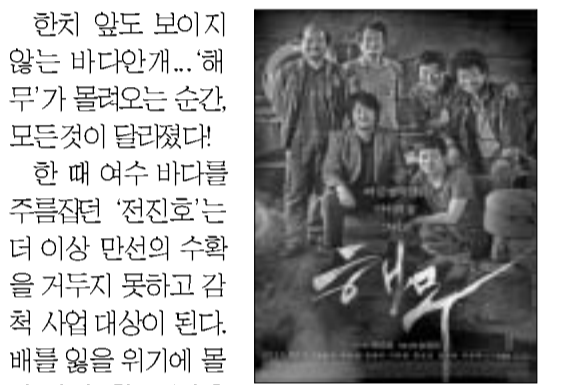
결론코달 것 같다는 말을 들은정래는 윤희정을 찾아가 따지고, 동필은 미순이 재균의 살인사건을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는데..

▲이브의 사랑 (MBC오전7시50분)



정옥양금석은 회사에 찾아와 구희장이정길이를 불렀고 송아운세아와 강모이재황을 회사에서 지프티 말타고 애원하는데, 송아는 아버지가 만든 정수기 회사 아니 만큼 뺏길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때마침 캘리진사연가 나타내서 이회사의 창업주가 진실장의 아버님이었는지 묻는데, 구희장은 뻔뻔스럽게 캘리의 손을들며 동업자라고 기지랄하면서 선포를 한다.

▲해무 (12일 채널CGV오후 10시00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다안개.. '해무'가 물려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한 때 여수 바다를 주름잡던 '전진호'는 더 이상 만선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감춰 사업 대상이 된다. 배를 잃을 위기에 몰린 선장 '철주'(김윤석)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선원들과 함께 낚은 어선 전진호에 몸을 싣는다. 선장을 필두로, 배에 숨어사는 인정 많고 사연 많은 기관장 '완호'(문성근), 선장의 명령을 묵묵히 따르는 행동파 기관장 '호영'(김상호), 돈이 세상에서 최고인 거친 성격의 툴러 '경구'(유승목), 언제 어디서든 욕구에 충실한 선원 '장욱'(이희준), 이제 갓 깃발을 시작한 막내 선원 '동식'(박유천)까지 여섯 명의 선원은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을 시작한다. 그러나 망망대해 위에서, 그들이 살아 나르게 된 것은 고기가 아닌 사람이었다! 선장 '철주'(김윤석)는 삶의 터전인 배를 지키기 위해 선원들에게 밀항을 돕는 일을 제안한다.

코오롱 제58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 개최

㈜코오롱과 (사)대한골프협회 주최하는 제58회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가 2015년 9월 10일(목)~13일(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14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4타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Par 71) 경기 방식으로 천안 우정힐스 CC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셔널타이틀 대회인 코오롱 한국오픈골프선수권 대회는 58년의 역사의 최고의 전통과 권위의 대회로서 국내 최고 상급 규모(총상금 12억/우승3억원), 국내 최다 갤러리(2014년 3만5천명), 한·중·일 상급랭킹1위 등 최고의 기량의 Top class 선수들이 참가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골프대회이다.

천안시는 세계 메이저급 대회로 도약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 개최에 있어 '고품격 스포츠도시 천안'의 이미지를 높이고 TV중계 등을 통한 천안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KTX 천안안산역~대회장 간 순환버스 운행 홍보 및 교통안내관 설치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김정환기자



장중태서구청장, 이외운동기구 설치 현장 실시 장중태 서구청장은 10일 도미동대아파트 인근 조경지를 방문해, 야외운동기구 설치지원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목원대학교 우수연구자간담회 개최 지난 10일 오전 10시 본부회의실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우수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연구경쟁력 강화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수연구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산시립도서관 농촌일손돕기 추수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아산시립도서관(관장 권경자) 직원 10명은 지난 9일 자매결연 마을인 염치읍 방현2리를 찾아 고령으로 인해 농사일이 어려운 두 가정에 대해 고투파기 작업을 실시했다.



공주농업대학 손님맞이 대청소 실시 공주농업대학(학장 오시덕) 재학생 60여명이 지난 9일 공산성과제민전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정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추석맞이 환경정화 활동 청양군 정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장중호)는 10일 위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명절을 맞은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암리~송학리(국도 39호선) 도로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대전보훈청, 정부 30교육 실시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명형)은 10일 정부 30 교육을 실시하고, 중점과제 추진에 대해 직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동식 세탁차량 2번째 기증... 운영비 전액 지원

한화토탈, 대산복지재단에 이동식세탁 차량 기증

서산시 대산을 독거리에 위치한 한화토탈(김희철대표)이 10일 대산을 사무소에서 이동식 세탁차량(시가 9100만원)을 대산복지재단에 기증했다.

한화토탈은 2013년 서산 복지센터에 이동식 세탁차량을 기증한데 이어 이번이 2번째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장승재 시의회 의장, 장갑순 시의원, 신상인 대산변영회회장, 김세철 읍장과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산복지재단에 기증된 세탁차량은 대산읍 29리를 순회하며 관내 거동불편 홀로 사는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세탁



탁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무

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궁극적인 복지의 목표"라며 "기증받은 이동식 세탁차량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사랑을 전달해 시민이 살맛나는 복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화토탈 김희철 대표, 대신이동식 세탁차량을 전달한 이은상무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대산복지재단에 기증한 세탁차량 운영비와 기타 비용을 전액을 한화토탈이 부담기로 해 지역민과 새로운 복지를 열어가는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서산=김정하기자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받아

역사·문화·생태 아우른 '내포문화숲길'



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자연과 하나 되는 클린워킹 등 역사와 문화를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프로그램이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은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심층적인 휴양, 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인력, 안전관리, 활동장소 등을 사전에 검증해 주는 제도로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위 관계자(이)씨는 교육홍보국장인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숲길과 자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대상별·테마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으로 확대하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숲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포문화숲길은 오는 9월, 10월 도내 작은 학교 체험학습 청소년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내포=이지용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비뚤직한 공단 미래상

뉴비전 및 미래전략 실천 결의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지사장 한길호는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10일 공단의 새로운 비전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결의대회를 가졌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의 위기,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확대,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안정적 재원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

고 있으며,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해 뉴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했다.

한길호 지사장은 "국민의 평생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공단의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 앞으로 보험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전 직원과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글로벌 취업예약형 장기현장실습' 실시

한밭대, 국내 취업난 극복 위해 미국 기업과 연계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국내 취업난 극복을 위해 미국 기업과 연계한 '취업예약형 장기현장실습'을 실시한다.

한밭대학교는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무능력이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9월7일(월)부터 12월5일(토)까지 3개월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기업에서 '글로벌 취업예약형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체 학과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지난 7월 서류심사 및 최종면접을 통해 기계공학과 2명, 화학생명공학과 2명, 영어영문학과 1명, 일본어과 1명 등

총 6명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외국 기업에서 원활히 적응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사전교육까지 마쳤

다. 또한, 미국 메릴랜드주 한국무역통상부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티슈진(TissueGene, Inc)의 19개 기업의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실습 희망기업을 선택하게 하고 해당 기업에 학생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 기업의 승인을 얻었다. 이는 '학생 선택형'과 '기업 수요형'이 결합된 방식을 활용해 학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쌍방향 윈윈 전략으로 학생-기업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했다.

이정복기자

● 동정 ●●●

축산인 한마음 대회



안희정 충남도지사 = 11일 오전 9시50분 천안 풍세면 산업단지내에서 열리는 2015년 축산인 한마음 대회에 참석. 오후 3시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충남지역 정부3.0 성과보고대회에 참석.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김기철 충남도교육감 = 11일 오후 3시 30분에 예산에하여 고에서 열리는 '2015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석.

축산인 한마음 대회



김기영 충남도의회의장 = 11일 오전 10시 천안 풍세 산업단지내에서 충청남도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참석. 오후 3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충남지역 정부3.0 성과보고대회에 참석.

임시총회 및 워크숍



임동규 충청남도새마을회장은 11일 ~ 12일 덕산리수스과캐슬에서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의 임시총회 및 워크숍을 주관.

시도부녀회장회의



김숙수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장은 11일 오후 1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갖는 시도부녀회장회의에 참석.

중앙협의회 임원회의



최순선 직장새마을운동충청남도협의회장은 11일 오전 11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갖는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임원회의에 참석.

학생과 함께 배움을 즐기는

중등 영어교사의 열정 만나다!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원동규는 2015년 9월 10일 중등 영어교사 융합형 직무연수 개강식을 가졌다.

충남도내 중등 교사 16명을 대상으로, 27시간 운영되는 이번 직무연수는 영어교사의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배움 중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 연수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온라인연수, 전화영어, 출석수업, 해외수업실습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로 진행된다.

정성범기자



당진새마을금고 '사랑의 줌どり 쌀' 전달

정영욱 이사장 "어려운 이웃에 작은 힘 되길"

MG 당진새마을금고이사장 정영욱(가) 지난 10일 당진시청 집견실에서 '사랑의 줌どり 쌀 전달식'을 갖고 쌀 5,000아(1100만원 상당)를 당진시에 기부했다.

'줍どり'란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 밥을 지을 때 미리 한 숟가락에 넣어 부뚜막 단자에 모았다가 남을 도왔던 전통적인 심심일반의 정신을 말한다. 새마을금고는 1998년부터 변함없이 '사랑의 줌どり 운동'으로 이

웃사랑을 실천해 저소득가정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있다.

이날 기탁된 사랑의 줌どり 쌀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영욱 이사장은 "모두가 큰 기쁨과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갖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전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데스크 칼럼



한대수
편집국장

대전의 유성과 충남 천안-아산 시의 국회의원선거구 증설문제에 대해 지역 정치와 해당 지역민들이 한목소리로 선거구 증설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해 이의 결정과정에 충청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당시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현안사업과 예산문제가 걸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지역민심을 중앙에 전달하는 강력한 입법기관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서 선거구증설은 현법의 이행이 고 존수해야 하는 정당성이라며 플래카드를 내걸고 막판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반영시키기 위한 지역

충청권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

여론의 정당한 발로이다. 또한 호남과의 지역을 비교해 볼 때에 표의 등가성의 실현이기도하다. 지역민들이나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여야 충청권 의원과 시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들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으로 여론조성과 각 당의 지도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선거구증설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때부터이다.

선거구 증설문제는 충청권뿐만 아니라 일부 타 지역에서도 선거구 증설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 의원들이나 지세 등 농어촌의 여건과 민심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의원 의석수는 여야가 동등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조율이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각 당과 해당지역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면서 친여하게 갈등구조를 보이고 있어 충청권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의원·당협위원장들이 지난 8일 국회정론관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보완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천안·아산 선거구 증설을 지도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합의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거구획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 충남도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이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천안·아산 지역 선

거구 증설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인 김재식 의원과 박찬우 천안갑·정종학 천안을 당협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과 나소열 충남도당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천안과 아산에 선거구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인시켜 준다"며 선거구 증설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선거구 증설은 이미 명분과 조건이 충분하다. 그동안 총선에서 과소대표된 충청권의 민심이 온전하게 국정에 반영되도록 선거구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표의 등가성에서 기인된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자치구, 시·군 일부지역에 대한 예외적 분할 허용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구조건을 만족시킨 천안과 아산의 일부 지역을 분할하여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리맨더링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충청권의 선거구 증설이라는 대의적 명분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대처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일부 의원들의 입장도 고려했다는 점에서는 두 쟁점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견이 많다. 왜냐하면 현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며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지 말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구나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증설해야 할 천안·아산 지역은 물론 대전 유성 지역의 증설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하면서 개리맨더링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결정에 부합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전 유성과 천안·아산 선거구 증설 주장은 누가 봐도 정당한 주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500만 충청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는 일부 지역의 여론반영이 관건이다. 여야가 합의한 의석수에서 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충청권의 선거구 증설문제에 걸린 해당지역 주민과 지역의 정치인은 물론 500만 충청인이 일치단결하여 적어도 영호남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이 나오도록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충청지역을 대변하는 민의 첫걸음이며 지역 현안과 지역 예산을 확보하고 충청권의 발전과 충청인의 삶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지름길이다.

사설

국감은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다

정부가 그동안 국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하였는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정책을 추진했는지 그 결과를 제대로 감시-감촉하고 비판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에 따른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 뜻인 국정감사가 22일간 열전에 돌입했다.

여야의 치열한 정책 공방과 피감기관의 무능과 부실담변을 질타하고, 자료제출과 증인신청 등 첫날부터 날선 공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예리한 비판과 집요한 추궁 그리고 올바른 대안제시의 장이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이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여야국회의원의 핵심의 정황동이자 1년의 결산이고 하이라이트이며 야당의 반격이 특히 눈에 띄게 돋보이는 것이 국정감사이다.

그러한 국정감사가 터뜨리기식 한건주의나 호통과 억압의 장, 재벌 길들이기나 쯤세우기로 진행되면서 야는 공격하고 여는 방패막이로 전락하는 비생산적인 국정감사로 끝이 나서는 절대로 안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 그에 따르는 막강한 권한과 특혜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국정의 잘못을 비판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며 법률로서 보완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봉사해야 할 막중한 자리이다. 국정감사가 국민을 위해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내용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19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부터 일제히 시작했다.

첫날 12개 상임위에서 시작된 국감이 시작 초기부터 국정 교과서 논란과 포털 사이트의 여론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여야간 서로가 지장이 불리하며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서로가 지당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기선잡기, 국감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몰이로 판촉된다. 실제로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법제사법·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부·교통·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집중 점검에 착수, 국정감사의 파행을 예고했다.

국감 첫날부터 증인문제, 정책문제, 기선잡기 등으로 고성이 오가며 파행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36개가 늘어난 708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하고 추석명절이 끝나면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총 22일간 국감을 실시한다. 19대 마지막인 이번 국감은 집권 반환점에

도달한 박근혜 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은 편 편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예정되어 있어 여야간 국정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즘 핫이슈로 떠오른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한국어 국정교과서문제, 중등교육기증후군(메르스) 부실 처치와 방역체계의 허점 노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휴대전화 해킹 의혹, 성원중 리스트파문 등 그 어느 해보다도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아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과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정책 집행과 막대한 예산을 계획한 대로 잘 집행하고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또 그 정책과 집행이 국민을 위해 유용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고 효과적인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서 국민에게 납득이 되고 있고 시정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며 국정감사의 목적이다.

여야가 서로 때리고 싸우며 파행으로 치달는 것이 국정감사가 아니라 보다 많은 자료와 정보 그리고 여론의 지적을 집약하여 국민들을 대신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목적이 맞게 입안하고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현재보다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성숙한 국회,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올바른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중요시하고 국감의 진흥에 귀를 기울이며 국회의원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호통치기의 국감, 기면 졸고 아니면 말고 식의 터뜨리기식 국감이나 기관장을 호통치고 어려운 경제에 실패를 기뻐하는 재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내며 길들이기 차원에서 줄을 세우는 국감은 정말로 지양돼야 한다.

꼭 필요한 재발만 꼭 필요한 상임위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경종을 울려달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를 멀리하고 정치인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총선체제로 접어든다.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날이 멀지 않았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면 생산적인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 방만한 경영을 질타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편안한 삶과 경제발전 등 중요한 국정 현안을 꼼꼼히 따져서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질타해야 한다.

그래야 19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국민들은 그런 국감을 기대한다.

건강 칼럼



송인숙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종합검진센터 원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햇곡식과 햇과일이 나와

풍요로운 한가위 가족 건강 챙겨보세요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출어져 있던 가족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어 예로부터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로 여겨졌던 추석이 다가왔다.

소중한 가족들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런 만남이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유지되길 소망해본다.

최근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평소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경제 불황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돌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고,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약한 면역력과 체력, 노화 때문에 건강을

유지·관리하기가 더 힘들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면 어떨까.

어린 자녀들은 건강한 성장을, 20-30대는 건강한 결혼생활과 사회활동, 40-50대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60대 이후는 퇴행성 질환 예방과 떨어지는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에게 맞는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8대 만성질환 유병률이 79.6%이며, 이들 8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 관절염, 결핵, 악성신장질환) 가운데 61.3%가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012년 한국의료개발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라, 부모님들의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종합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일반건강검진, 국가암 조기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 개인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폐렴구균, 대상포진, 자궁경부암, A·B형 간염 등 예방접종도 꼭 맞아야 하며, 금연 절주 비만예방 영양 스트레스 상담 등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건강한 몸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기고

불량식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김병훈
천안동남서경무계경사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려나 가면 바깥이 제법 쌀쌀합니다. 덥다고 에어컨을 켜놓고 있었던 게 그것 같은데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추석이 임박합니다. 올 추석은 대체 휴일제로 4일을 쉴수가 있습니

다. 많은 분들이 추석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매년 추석이 다가오는 이맘때가 되면 TV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불량식품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석 성수식품(계수용품, 농·축·수산물 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단골손님처럼 나타나는 불량식품... 우선 정확한 정보로부터 알아보면 불량식품은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全)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범위만 제품을 말한다 고 합니다. 이러한 위해 식품 등 범 위반제품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불량식품'으로 정의 한다고 합니다.

가령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 식품,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불완전 조제품,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포장 유해 물질 기준·규격 부적합 식품,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 재사용한 식품, 수입신고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등 불량식품의 범위는 매우 다양 합니다.

그럼 이러한 불량식품을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신고를 하여야겠죠.

불량식품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399, 인터넷 식품안전소비자 신고

센터, 모바일 앱 식품안전파수꾼을 통해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시스템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포상금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니야 포레의 분들이시면 어렸을적 등하갓길 분구점 앞을 지나칠 때마다 불량식품에 유혹가 빠졌던 경험이 다들 있을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줄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할때인 것 같습니다. 며칠 안남은 추석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없이 즐거운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의 향기



이체작

우리라는 이름의 당신이 좋아요

'우리 오늘 만날까?' 라는 당신의목소리가 산들산들 바람 향기로 스쳐올때 설레는 내 가슴엔 배알간 꽃봉오리가 맺혀요

우리라는 이름의 당신을 만날때면 강변엔 바람 내 마음엔 꽃바람 하늘빛 강물엔 행복이 출렁이죠 만남의 기쁨이란 이렇듯 좋은건요

파란 잔디밭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면 안개 낀 하루는 어느덧 사라지고

풀꽃 핀 언덕엔 애지라니가 햇살 당신의 눈망울에 꽃구름이 예뻐요

'우리 차 한잔 할까?' 라는 마음과 마음이 생각으로 통할때 보랏빛 향기 그윽한 찻잔엔 미소 한모금의 위로가 머물고 사랑 한모금의 정겨움을 느껴요

언제나 진실한 빛, 그 고운 빛으로 당신과 나, 산새들이 지저귀는 우정의 푸른 숲을 기쁘기로 해요 기쁨, 노란 카나리아가 되어 그 숲에서 우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 d-mail@har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영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체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대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말로하는전화

1636 누르고 목청꿀 을 말하세요

주문상담 080-1111-0000

NATURAL KOREA 네츄럴코리아
NAVER 네츄럴코리아
www.naturalkorea.net



천연야생꿀 목청

Natural Honey 100%



YouTube '목청꿀' 채밀영상



네츄럴코리아 천연야생꿀 목청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원시림의 수 많은 꽃에서 얻어지는 꿀과 고목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이 합성되어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캄보디아의 원주민 사이에서도 '신비의 꿀'로 알려져 있으며, 진귀한 천연야생꿀 목청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소중한 분께 전하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며, 한정된 수량만을 특별한 가격으로 제공해드립니다.



2400g 특별행사가
675,000원 → 472,000원



1200g 특별행사가
345,000원 → 240,000원

『동의보감의 꿀』

별꿀은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비위를 보강하고 아픈 것을 멎게 하며 독을 풀 뿐 아니라, 온갖 약을 조화시키고 입이 험 것을 치료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한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검사로
고품질의 안전한 꿀 인증



네츄럴코리아 목청은
100% 천연야생 꿀입니다



원시림의 수많은 꽃에서
얻어지는 꿀과 고목나무의
수액이 합성된 '목청'



건강과 활력을 위해
아침, 저녁 공복에
꾸준히 복용하세요